

#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4권 6호 통권21호

1982. 12

卷頭言 2000年代를 향한 跳躍

論 壇 教育計劃의 原理  
未來研究의 方法論  
腦研究와 教育

特 輯 2000年代의 社會發展과 教育  
(創立 10周年 記念 세미나)

◆2000年代의 韓國과 教育의 課題

○2000年代의 韓國  
政治發展 / 經濟發展 /  
社會發展 / 科學·技術發展

○2000年代를 향한 教育의 課題  
家庭教育 / 學校教育 / 社會教育

○KEDI의 發展을 위한 提言  
KEDI의 國際的 役割  
KEDI의 使命과 方向探索  
KEDI의 發展方向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韓國教育開發院은 우리의 傳統과 現實에 알맞는 敎育의 理念, 目的, 內容, 方法 등에 관한 綜合的 이며 科學的인 研究를 遂行하고, 韓國敎育이 當面한 諸般問題를 해결하는 새로운 方案을 研究 開發하여 長期的인 國民敎育發展에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韓國敎育開發院 育成法(1973. 3. 14 法律2616號)에 依하여 保護育成되는 研究機關입니다.

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연구개발 및 현장교육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교육전문지입니다. 교육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이 간행물을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활동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편집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卷頭言	2000年代를 향한 새로운 跳躍 .....	院長 / 4
論 壇	教育計劃의 原理 .....	朴德奎 / 6
	未來研究의 方法論 .....	姜武燮 / 9
	腦研究와 教育 .....	高永熙 / 12
特 輯	2000年代의 社會發展과 教育의 課題 〈創立 10周年 紀念 세미나〉 2000年代의 韓國과 教育의 課題 .....	文敎部 長官 / 16
	2000年代의 韓國	
	政治發展 .....	朴奉植 / 23
	經濟發展 .....	具本湖 / 25
	社會發展 .....	金泳謨 / 27
	科學·技術發展 .....	金貞欽 / 29
	2000年代를 향한 教育의 課題	
	家庭教育 .....	安仁熙 / 31
	學校教育 .....	辛世浩 / 37
	社會教育 .....	李相周 / 43
	KEDI의 發展을 위한 提言	
	國際的 役割 .....	Robert M. Morgan / 49
	使命과 方向探索 .....	Paul H. Masoner / 52
	發展方向 .....	James Kelly Jr. / 55
	韓國教育開發院 略史 .....	/ 57
研究報告	本院 研究報告 抄錄	
	政治·社會發展을 위한 教育의 役割 .....	/ 59
	學校 教育目標에 대한 社會的 要求分析 .....	/ 59
	韓國 社會教育의 發展課題 .....	/ 60
	教育均衡發展의 接近과 課題 .....	/ 60
平生教育의 理念定立에 관한 研究 .....	/ 60	
教育學 策 散	教育社會學의 研究 觀點 .....	朴富權 / 61
	現場教育 相 談	
科學教育에 있어서 實驗·實習 .....	朴範翼 / 64	
院內動靜	消息 .....	/ 66

편집위원

- ◇◇—  
 위원장 오진석  
 위원 강상조  
 박병선  
 김영철  
 김학천  
 박승해

(가나다 순)



# 교육방송 중계탑

## 교육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주간 편성표

1982. 12. 6 ~ 1983. 2. 28

방송망 : KBS 교육 TV

구분	요일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 B S 3 T V	16:00						유아 (부모대상)	
	16:20						특활	
	16:40						실과	
	17:00						중학기술	
	17:30	텔레비전 유치원				유아 (부모대상)		
	17:50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생활	음악/ 미술	도덕		
	18:10	자연	사회	산수	국어	체육		
	18:30	중학영어	민주생활	영어	과학	영어		
	19:00	국어 1	국어 2	국어(특)	사회 (사회문화/정경)	지리 (인문/국토)		
	19:30	수학	수학	수학	수학(특)	국민윤리	예능	
	20:00	K B S						
	22:00	역사 (국사/세계사)	영어(특)	영어	영어	영어		
	22:30	과학			진로지도		교사의 시간	
	23:00	(생물/물리)		(화학/지학)		진학 취업		

## 교과서 박물관

본원은 우리 나라의 역사 의식과 문화를 대표하는 역사적 유산인 교과서를 길이 보존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教科書 博物館」을 開設한다. 이 박물관은 뜻 있는 분들의 기증본과 자체의 성원에 힘입어 개설되는데 國內·외의 각종 교육 과정 자료 및 교과서를 연대별, 과목별로 분류 전시하므로써 개화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 나라 교과서의 변천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본원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그동안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자료를 소장하고 제신 개인이나, 학교, 기관, 단체의 기증 문의는 본원 교육자료 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수집자료 내용

1. 개화기 이래 1960년대까지의 각종 교육 과정 자료
  - 교육 과정 관련 문서
  - 각급 학교의 교과용 도서(교과서, 교사용 도서 등)
  - 각급 학교의 평가 자료
  - 수업용 보충 교재 및 학습 자료
2. 외국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발행 연도 및 국가에 관계 없음)

연락처 : 135 서울 강남구 우면동 산 2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국(Tel. 567-5021)

## ERIC 자료의 원문을 제공합니다

### ※ ERI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미국>)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ERIC자료의 원문이 실린 Microfiche를 소장하고 있으며, 열람·복사를 위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국내 교육학 관계 인사 및 연구자에게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내 용 : ERIC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집한 교육관계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 1975년 이후에 생산된 최신 자료
- 교육학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자료
- 각과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자료

자료이용 : 수시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67-5021, 5121 교환 262·26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국

##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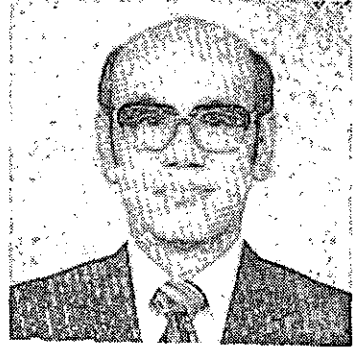
본원이 가졌던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각계 인사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2000년대의 사회 발전과 교육”이란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우리가 맞게 될 200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될 면모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교육의 과제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가 올 2000년대에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도 성장의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밝은 전망이 교육을 통해서 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값진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이할 2000년대를 위하여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동시에 국가 사회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현재 국정 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

고 있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 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구현, 그리고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 이 모두가 교육을 통해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교육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더우기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교육이 제 4차 산업으로서 국가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기대 또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미래의 급변하는 국내·외의 여건을 예측하여 볼 때, 외교적인 차원에서 국제 정치의 양상과 면모는 현재보다 훨씬 다원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며, 이와 함께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으로 말미암아·맹방간의 결속에 금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한 민주 정치 체제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함양, 그리고 민주 복지 사회의 건설을



홍 응 선  
(원 장)

위한 국민 정신 교육은 물론 민주 시민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래할 고도 산업 사회를 전망하여 볼 때, 인력 수요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인력 구조의 재편성 및 인력의 질적인 향상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존 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로서는 경제 발전을 교육 받은 인력에 크게 의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인력의 개발이란 면에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도 산업 사회의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 사회에서의 두뇌 경쟁과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도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한편 우리가 지향하는 고도 산업 사회가 풍요한 우리의 미래를 약속은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간 소외, 물질만능 풍조의 만연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처하

기 위한 사회 의식 구조의 개선과 인간 교육의 강화 및 건전한 가치관의 함양이 요망된다고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조화로운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 교육 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교육 연구·개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보았읍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은 한국 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본원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를 준 것으로 확신 합니다.

본원은 이를 토대로 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본원의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

# 教育計劃의 原理

朴 德 圭\*

## 序

교육학은 교육에 관계하는 전문인들에게 교육의 본질을 알게 하고 교육학 이론에 의한 교육 행위를 하도록 돕는 학문이다. 이 글은 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계되는 원리를 관찰하고 비평하여 교육의 핵심과 본질을 잃지 않는 교육 계획 기술(Technik)의 기본 원리를 정립해 보았다.

## I. 용어의 정의

1) 교육: 교육 정책 및 계획에서 교육의 의미도 일반 교육학에서의 내용과 같이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머물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뜻한다. 교육의 원어인 그리스어 *paideia* 또는 *plasma*, 라틴어의 *formatio* 는 「형성」을 뜻하며, 영어의 *education* 의 어원인 *educatio* 와 *eruditio* 는 자기 배양과 「미숙을 성숙으로 이끔」을 뜻하여 이 원어들은 교육 행위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성립시켰다. 교육 계획에서 교육은 인간을 인격화·사회화·문화화하려는 구체적 실현 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얻으려는 노력, 의식 상태, 정신 발달 과정, 인간의 자율성 등이 내면에 형성되는 자기 교육에 관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계획에는 이러한 교육의 복합적 의미가 먼저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뜻에 따라 계획이 구체화된다.

2) 계획: 사회학·정치학 및 기본법의 법이론적인 의미로서 구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계획은

공학에서는 여러 개의 부속품이 상호 부작용 없이 서로 결속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로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Ablauftechnik)을 말하며 그에 동반되는 갈등 가능성, 경제성, 가치 요구 및 특성에서 생기는 변수 등에 대하여 마찰이나 손실없이 발전된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 계획: 교육 계획은 합리적인 교육 제도, 사회 제도, 교육 과정 및 교육 경제의 질적, 양적 실현화의 사회 경제적 미래의 단·중·장기 보장의 목적에 따라 ① 교육 정책적 결정의 사실적 준비, ② 결정 사항의 성공적이고도 합리적인 교육 발전의 보장과, ③ 민주적 제도 장치(사회)에 의한 준비와 실천의 실제적이고도 지속적인 컨트롤을 뜻한다.

## II. 발전된 교육 계획 의미와 조건으로 분석한 교육 계획 이론

현재까지 교육 계획에 기초가 되는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들이 있다.

1) 인력 수요 원리(*manpower approach; Bedarfskonzept*): 인력 수요 원리는 OECD에서는 선진국을 그 연구 대상으로, UNESCO는 후진국 또는 발전 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이 원리를 발전시켰는데 OECD의 지중해 프로젝트인 9단계 계획 방법이 모델화 되었다. 이 원리는 통계에 의한 수요 인력 추정 방법으로 미래의 경제 발전과 이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초점이 주어졌던 것으로 교육 정책이 경제 정책에 좌우되어 교육과 생산이 직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잃게 한 이론이

\* 서독 도르트문트대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현재 본원 교육발전연구부 책임 연구원, 「서독의 김나지움 교사 양성의 비교」 「대학 교수법」 「베르트 하세슈타인의 생물학적 인간학」 외 논문 다수.



다. 미래의 계획이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 근거가 될 수 없는 통계 숫자에 대한 의존성이 이 원리의 약점이다. 교육 계획은 경제 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되 동일선상에서 정책화되어야 한다.

2) 사회 수요 원리(*social demand approach; Nachfrage-Konzept*) : 독일인으로 영국 런던 이코노믹스쿨의 총장인 Ralf Dahrendorf는 현대 교육에 교육 기회 균등과 인간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 사회학자이다.<sup>1)</sup> Dahrendorf의 교육의 기회 균등 권리를 보장하고 휴머니즘적 교육 계획상 상위의 목표를 정당화시키며 교육 정책의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육 제도란 사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이 사회 수요 원리도 Robbins-Report에 의하여 구체화되었으나 individual, cultural 그리고 social demand approach에 의하여 변화된다. 교육 계획도 법이론과 같이 자연 발생적이며 다수를 위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하여 제한의 원리가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 모델의 결점은 Riese<sup>2)</sup>의 해석과 같이 대학의 학과 신설 또는 증원 등이 실제 개인 또는 사회의 요구에 적합토록 계획되어지지 않고 다른 외적 요소가 작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대학을 졸업한 후 소속 사회의 생산 인력 구조와의 불일치로 전문성을 상실하는 등 교육 내용의 비실용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3) 투자 원리(*rate-of-return approach; Kosten- Ertrags- (Humankapital)-Konzept*) : 국민의 평균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는 부강한 국가가 된다는 Thünen의 말대로 될 수 있는, 국민의 교육열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론이 투자 이론이다. 사회가 복수 분업화 됨에 따라서 교육 분야도 다른 분야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교육 재정의 축소가 이 제도의 장점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국민 교육을 위한 제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인간 교육」 원칙에 따를 수 있는 투자 원리는 자연 발생적 교육 원리로 앞의 두 가지 이론보다는 교육의 근본을

더 많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전통의 원리 : 한 나라에는 교육적 전통이 있다. 경제성에 맞도록 짜여지는 교육 계획들이 한 국가의 교육적 전통 위에서 실용 가치를 찾아야 하나 흔히 전통이 무시된 채 실용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뿌리없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 「신보수주의」이다.

제급 의식을 배제하고 평등 주의를 가미한 신보수주의 계획 이론은 교육의 주체(사회적 차원에서)는 학교이므로 가정 및 사회 교육도 학교 교육에서 그 소속 사회의 가치를 전달받아 국가의 이념, 민족관, 사회 및 경제적 생활 규범, 윤리 도덕이 발전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가 가정에서 가정적 전통을 학교에 가지고 오면 학교는 그 소속 사회의 가정의 전통들을 모아 동일성을 갖게 하고 그 동일성에 자아 의식을 심어 각 가정으로 보내면 이것이 전통화된다 하여 「전통의 원리」라 했다.

5) 비판 교육학적 원리 : 현대 사회는 「복수 분업 능력 사회」이므로 학교 교육이 각 개인의 삶의 수단인 직업에 관한 완성을 책임져야 한다. 비판 교육학적 계획 원리는 소련을 위시한 동구 여러 나라와 서구 여러 나라의 직업 교육의 원리<sup>3)</sup>의 기초가 되는 교육 경제론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을 촉진시키고 자본 축적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전문 직업 교육과 학문 및 과학 기술의 연구가 교육 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 내에서의 학교는 다음 세 가지 임무를 갖는다.

① 사회에 “꼭” 필요한 생산 인력을 양성(ökonomische Reproduktionsfunktion)해야 하고;

② 소속 사회 조건에 알맞게 재 생산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교육(politische Reproduktionsfunktion und ideologische Rechtfertigung der bestehenden Gesellschaft)을 실시해야 하고;

③ 교육 자체 인력 양성과 사회적인 발달에 마찰없는 적응 등이다.

6) 실용성 교육 과정 계획 원리 : Popper가

1) 저서 『Bildung ist Bürgerrecht』 (1969)는 교육, 시민,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다룬 그의 대표작이다.

2) Straumann, P.R.: Neue Konzepte der Bildungsplanung, Reinbeck 1974 s. 217.

3) 서구에서는 직업 교육, 동구에서는 공업 교육(Polytechnik)이라 한다. 두 용어의 원천은 산업 혁명 후 영국에 생겨난 Polytechnic school이다.

발전시킨 Platon의 교육 이론을 교육 계획에 적용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교육 제도와 교육 과정의 일치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정신 및 물질 생활의 실용성을 얻자는 계획 이론이다. 학교는 성장 기간의 인간에게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직업적인 완성을 시키도록 교육 과정이 세워져야 학교 교육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고전 철학과 현대 사회학의 “인간 교육론”의 부산물이다.

### Ⅲ. 교육 계획 원리의 종합 분석과 비판

교육 계획도 교육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복합성을 배경으로 경제성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는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된 6가지 원리들의 단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 발전에 필요한 교육받을 인력의 필요에 따라서는 편중된 계획; ② 개인의 욕구에 따르는 지나친 팽창; ③ 직업적 이동성을 대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계획; ④ 고학력자 실업 증가를 유발하는 계획; ⑤ 전인 교육의 약화; ⑥ 계급 의식의 부활; ⑦ 부수적 문제 발생에 대처할 수 없는 계획; ⑧ 이웃분야와의 불협화음으로 고립된 계획; ⑨ 교육 계획은 사회 발전에 항상 뒤지고 있는 점; ⑩ 경제 계획과 교육 계획의 목표가 반드시 일치하게 교육 결과가 오지 않는 점 등이다.

교육 계획이 취급하여야 할 요점과 배경들을 이 글이 목적하였던 교육학적 교육 계획 이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교육 계획은 기본법에 보장되는 교육 가치에 따라 각 개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성장에 필요한 욕구를 균일하게 반영하고; ② 개방 복수 사회의 교육 목표와 시민 교육 및 국가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③ 교육 계획은 의견의 상위를 선택해야 하고; ④ 교육 발전이 정상 궤도에 있을 때에는 지역 및 분야별로 세분화된 “부분 교육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⑤ 실험

교육의 운영은 부분 계획의 긍정적·부정적 작용과 결과를 얻는데에만 실현되고; ⑥ 전체 교육 계획 원리에 의하여 부분 계획이 재조명되고; ⑦ 교육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개발 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교육 개혁은 교육 복지를 위한 경우 교육 혁명에 의해 이룩할 수 있고; ⑧ 교육 개혁을 위한 조건이 계획 이론과 갈등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교육학적 낙관론과 교육학적 치료론을 정립시켜 교육 정책화할 수 있으며; ⑨ 교육 계획에는 사회학 및 심리학이 더 많이 참여되어야 한다.

### Ⅳ. 結

교육 계획 이론들이 교육학에서 연구된 것이 한 가지 빼면 (No. 6) 없으므로 이의 연구가 교육학 내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교육학이 교육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고, 교육 정책은 교육학 이론대로 실행될 때 교육의 본질이 중요시되는 교육학적 계획 이론의 정립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갈등이란 실제를 무시한 이론의 독주와 원리를 채 눈여겨 볼 겨를도 없는 처방의 속성 때문이라고 판단될 때<sup>4)</sup> 학문 이론이란 사회학에서 정의한 「학술 이론」<sup>5)</sup>을 정론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가 동시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교육에 기대하는 바를 교육학에서 연구하여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흥미와 목표를 교육학에서 연구하여 교육이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다면 교육 계획을 통한 교육학 이론의 실체가 이루어지므로 교육학적 계획 이론 정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도덕성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교육 발전의 필요가 아래에서 위로 자연 발생되며, 인간의 교육 받을 권리가 민주적으로 실현될 미래의 한국 교육을 희망적으로 기대한다면 교육의 근본을 좀더 연구하고, 교육 계획이 교육의 본질을 토대로 이루어질 때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머물게 하는 행위가 정상화될 것이다. —●—

4)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관계는 철학적 해석을(해석학)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5) Wissenschaftstheorie

# 未來研究의 方法論

姜 武 燮\*

## I

많은 사람들이 미래(future)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하여 왔으나 오늘날 미래 연구(future research)는 하나의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여도 모호하고 불분명한 어떤 것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미래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 미래에 전개될 사태(events)나 발전(developments)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방법 등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다.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 연구」는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통하여 어떤 분야의 계획(plan)이나 정책 입안(poliagmaking)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미래 연구자는 앞을 내다보고 최선의 정책과 시책 방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Martino (1979)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래 연구자들은 미래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똑같은 기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측(forecast)」으로 압축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예측」을 합리적인 연구와 유용한 관련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사태나 상황을 계산 또는 예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태나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검토하는 것이다. Ruff (1951) 등은 미래 예측의 성공 여부는 그 분야에서의 일정한 변화의

패턴, 그 패턴을 파악하는 연구자의 능력, 그리고 그 패턴에 관련된 자료의 유무에서 좌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나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육 계획이나 교육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미래 예측 방법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단 이분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델파이(delphi) 조사 방법은 약하기로 한다.

## II

미래란 대체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예측이 가능하였다. 자연 과학 분야에서의 실험이 어떤 조건하에서만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미래의 예측도 어떠한 과거의 변화 형태가 미래에도 계속되어 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Martino, 1979).

그러나 자연 과학 분야의 실험에서와는 달리 사회 과학 분야의 실험 또는 미래의 예측 등은 자연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 과학의 실험을 특징지워 주는 통제(control)가 사회 과학, 특히 미래 연구에서는 어렵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과학이나 미래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 문화적 현상(social and cultural phenomena)이 자연 과학에서 다루는 물리적인 현상(physical phenomena)보다 분류·분석하기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연

\*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현재 본원 교육발전연구부 책임 연구원. 『한국 대학 교육 과정의 발전에 관한 연구』 『고급 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동 체제의 개발』의 논문 다수.

구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나 타당성이 문제시된다. 또한 미래 연구자들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명한 기본 가정을 세웠다 하여도 시간차에서 오는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즉,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미래 예측이나 장기 계획 등이 비록 그 예측 또는 계획의 과정이나 방법 등에 결점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계획의 실천 단계에 살게 될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Fowles, 1978). 그러나, 미래 연구에 대한 이러한 결점이나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 미래의 계획이나 정책 개발 등에 미래 연구가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기획자(planners)나 정책 결정자(policy-makers)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미래 예측의 접근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탐구적 예측(exploratory forecasting)과 규범적 또는 예언적 예측(normative or predictive forecasting)이다. 탐구적 예측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에서 출발하여 미래의 전망이나 발전 등을 추계하는 미래 예측의 방법이다. 즉, 과거와 현재의 발전으로 미래를 유추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 반면에 규범적 예측은 어떤 이상적인 미래의 상을 설정하고 현재를 이 이상적인 미래의 상으로 변천시키는 가능한 길을 모색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접근 방법이다. 규범적인 예측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미래가 어떻게 구상되고 만들어 질 것인가에 대하여 가치지향적(value-oriented)인 가정이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미래 예측의 두 접근 방법은 상호 상반되는 것 같지만 실제 미래 연구자들이 활용할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보통 규범적 예측 방법에서도 구상하는 미래의 실현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항상 탐구적 예측 방법을 염두에 두게 되며, 비슷하게 탐구적 예측에서도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규범적 예측을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III

탐구적 미래 예측 방법으로서 교육 실제의 미래 예측을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추세 유추 예측(trend extrapolation forecasting), 매트릭스 예측(matrix forecasting), 시나리오 예측(scenario forecasting), 그리고 시뮬레이션 예측(simulation forecasting)이다.

추세 유추 예측은 가장 단순하고 많이 활용되는 미래 예측의 방법으로 어떤 대상의 역사적인 변화의 패턴이나 추세에서 그 대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세 유추 예측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되풀이하여 추정된 어떤 대상에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며, 이들 관련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일정한 변화의 패턴이나 추세를 찾아내게 된다. 이 경우 그 대상에 대한 미래 예측은 발견된 변화의 패턴이나 추세로서 직접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화나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미래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추세 유추 예측은 유추를 위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만약 역사적인 자료가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걸쳐 수집되지 않았거나 혹은 수집된 자료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관성이 없으며 미래 예측 자체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문제시 되며 나아가서는 계획이나 정책 등을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탐구적 예측 방법들이 하나의 대상 영역을 예측하기 위하여 이용되지만 매트릭스 예측은 세분화된 영역의 예측을 통합하고 그들간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상호 영향 분석(cross-impact analysis)이다. 엄격히 말하여 이것은 미래 예측의 방법이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예측들에 대한 일관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상호 영향 분석은 어떤 분야의 사태들 간이나 혹은 발전 간에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의되어진다. 하나의 미래 예측 방법으로서 상호 영향 분석은 아주 다양한 문제에 쉽게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수정될 수도 있다. 미래 예측자는 주어진 여러 변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상호 작용에 각 변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 영역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상호 영역 분석은 미래에 중요한 사태나 발전이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개발이란 면에서 정책 입안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나리오는 가능한 미래를 기술하는 하나의 직관적 스토오리이다.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는 어떤 대상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며 정책 결정자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융통성 있고 적응력 있는 기획이나 정책 결정을 유도 한다. 그러나 시나리오의 가치는 정확한 해답보다도 정책 결정자나 기획가가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체제 변화의 통로를 보여 주는 데 있다. 시나리오는 하나의 과학으로 보다는 오히려 고도의 상상력을 요하는 예술의 형태로 기술되어 진다. 그러나 미래 예측의 방법으로서 시나리오가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술하여야 한다.

수학적인 시뮬레이션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유력한 하나의 미래 예측 방법이 되었다. 시뮬레이션은 모형화되어질 체제(system)의 행위를 모조화 하는 하나의 수학적인 표현이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대체로 콤퓨터화되어지고, 자료를 조직화하며 신속히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 경제 및 기술 체제를 통합하는데 아주 유익한 모형이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미래 예측에서는 예측자가 어떤 분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모든 요인들과 그들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때 시뮬레이션 모델은 실세계의 어떤 분야의 미래에 대한 사고를 위한 분명한 구조/framework)를 제공할 수 있다.

규범적 미래 예측 방법으로는 연관성 제도(relevance tree)와 형태학적 분석(morphological analysis) 등을 들 수 있다.

연관성 제도는 결정 제도(decision tree)와 같이 목표 지향적(goal-oriented)인 미래 예측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이들은 보통 하나의 사태나 결정을 대표하는 하나의 선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사태의 가능한 흐름을 나타

내는 복잡한 가지(branches)로 분류되어 진다. 하나의 가지는 연관성 제도를 이루는 요소들로서 상호 배타적이다. 하나의 요소는 하나의 주어진 문제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바로 상위의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하위 수준의 가지들이 체제의 주요한 각 요소를 위한 가능한 대안을 나타낸다. 연관성 제도는 하나의 문제와 일련의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규범적으로 예측하게 된다.

규범적인 미래 예측 방법으로서 형태학적 분석은 연관성 제도와 비슷하나 성격상 연관성 제도는 분석이 위계적(hierachical)이지만 형태학적 분석은 비위계적(nonhierachical)이다. 형태학적 분석 방법은 하나의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하나의 미래 예측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래 예측자가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영역에 대하여 몇 개의 대안들에 관련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 요인들에 대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선정함으로써 그 영역에 대한 대안들이 종합되어 진다. 다시 종합된 대안들은 그 대안의 실현 가능성(feasibility)과 실현 가치성(desirability)의 준거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하나의 규범적인 미래 예측이 가능해 진다.

#### IV

1960년 이래, 많은 분야에서 미래를 탐구함으로써 그 분야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래연구의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미국 스탠포드 연구소(Stanford Research Institute)에서 출판한 「Handbook of Forecasting Techniques」이란 책자에는 무려 150종의 미래 예측의 접근 방법이 수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접근 방법들이 교육 실재에 원용될 수도 없겠지만 원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교육 분야라고 생각되어 진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입안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 연구의 방법론은 교육 계획이나 교육 정책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더 나아가서는 교육계획이나 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방법론에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 腦 研究와 教育

高 永 熙 \*

## I. 서론 : 「뇌」 연구의 교육적 의의

인간의 뇌는 좌·우 둘로 나누어지며, 좌·우측 뇌는 자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뇌에 비해서 보다 우세하거나 열세하거나 혹은 서로 비슷하다고 한다. 이러한 뇌의 기능과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는 교육학자들에게도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 교육학자들이 뇌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뇌 연구의 결과를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교육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데 그 기본 가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뇌 연구의 교육적 의미를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인 자극과 경험은 뇌의 성장과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인 능력의 성장은 適期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어떤 종류의 인지 훈련(cognitive training)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인지 형태(cognitive style)에 부합된 수업 방법에 의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째, 좌·우 뇌의 인지 기능과 상호 작용의 연구는 인지 개발과 인지 형태의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뇌 연구의 교육적 의미는 곧 뇌 연구

의 결과를 교육 과정 개발, 수업 설계, 학습 방법 개선, 교육 자료 개발, 학습 평가 개선, 그리고 학습 부진아의 진단과 처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뇌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또 무엇이 교육 개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 II. 「뇌」 연구와 「뇌」 연구의 기능적 특성

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는 꽤 오랜 역사를 가졌다. 좌·우 뇌의 기능차를 밝히는 최초의 연구는 1836년 마르크 닥스(Marc Dax)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초기 뇌에 관한 연구는 뇌에 손상을 입은 뇌일혈 환자와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더욱 최근에는 콜퍼스 칼로섬(corpus callosum)을 의과적으로 제거하여 좌·우 뇌의 기능을 연구하였다. 콜퍼스 칼로섬은 뇌의 좌·우를 연결하는 조직이며, 이를 중심으로 뇌가 좌·우로 分割된다. 콜퍼스 칼로섬을 제거하므로써 뇌의 좌·우측은 서로 고립된다. 즉, 한쪽 뇌에 전달된 정보나 자극이 다른 쪽 뇌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의 뇌와 그에 상응하는 신체의 반응은 다른 반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우측 뇌는 신체의 좌측 반응을, 좌측 뇌는 신체의 우측 반응을 통제한다) 좌·우측 뇌의 특성이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좌·우측 뇌의 기능차를 확인하는 증

\* 피츠버그대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본원 교육과정연구부 책임 연구원. 『수업 기술』 『수업 전략』 『교수 학습의 이론과 실제』 등의 저서와 「뇌기능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 「한국 학생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논문 다수.

거 수집의 방법으로 양분 청취 검사(dichotic listening test), 순간 기억력 측정 검사(tachistoscopic image presentation), 뇌 전도 검사(electroencephalographic: EEG), 그리고 눈동자 움직임 검사(conjugate lateral eye movements)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검사들은 뇌 연구자들이 정상인의 좌·우측 뇌 사이의 인지차(cognitive differences)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접근 방법들이다. 이들 검사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言語喪失은 우측 뇌보다 좌측 뇌에 손상을 입었을 때 더 심각히 일어난다.

2) 양분 청취 검사에서, 낱말과 숫자가 자극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좌측 뇌에, 음악과 환경적인 소리와 같은 비언어적인 자극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우측 뇌에 보다 정확히 전달되었다.

3) 언어적인 정보가 좌측 눈에 제시되었을 때보다 우측 눈에 제시되었을 때에 더 정확히 인지되었고, 사람의 얼굴은 우측 눈에 제시되었을 때보다 좌측 눈에 제시되었을 때 더 빨리 인지되었다.

4) 언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EEG가 좌측 뇌에 알파(alpha)진폭보다 적게, 공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우측 뇌에 알파진폭보다 적게 나타났다. 여기서 알파 진폭은 사람이 눈을 뜬 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의 EEG에 나타난 그래프이며, 알파 진폭보다 적은 진폭일수록 뇌가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속담풀기, 철자쓰기, 정의하기, 산수 문제 풀기, 논리적인 문제풀기와 같은 학습 활동을 할 때는 눈동자를 우측으로 움직이고(좌측 뇌의 활동을 의미), 視空間的인 문제풀기와 음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눈동자를 좌측으로 움직인다(우측 뇌의 활동을 의미).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좌·우 뇌의 기능차를 확인해 주고 있다. 즉, 언어를 구조화 하기,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계산하기, 숫자나 낱말을 차례대로 외우기와 같은 일들은 좌측 뇌의 기능으로 특징지우고, 얼굴 기억하기, 환경적 소리(자연음)·멜로디·소음 인지하기, 점 위치 찾기, 시각적 형태 파악하기(그림이나 사진의 지각과 해

석 등)와 같이 덜 구조화된 일들은 우측 뇌의 기능으로 특징지워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좌·우 뇌의 기능차는 어떤 과제를 학습하는 양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좌·우 뇌는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의 형태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좌측 뇌는 우측 뇌보다 언어적이고, 계열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과제 해결에 접근하고, 우측 뇌는 시공간적, 직관적, 형태적(gestalt)인 방법으로 과제 해결에 접근한다.

따라서 좌측 뇌는 읽기, 쓰기, 말하기, 셈하기와 같은 학교 학습의 기본적인 능력을 통제하고, 우측 뇌는 음악, 그리기, 조각하기와 같은 예술적인 기능을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의 약 98%와 왼손잡이의 약  $\frac{2}{3}$ 가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 Ⅲ. 「뇌」 연구의 결과가 준 교육적 시사

뇌 연구의 결과에서 우리는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종래에도 교육에서 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먼저 새로운 의미에서의 뇌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뇌는 전달된 정보를 막연히 받아들이거나 학습하지 않으며, 정보의 수동적인 소비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뇌 그 자체가 정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낸다. 그러므로 어떤 정보는 무시하고 다른 어떤 정보는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뇌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조직하고, 저장(기억)한다. 따라서 모든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보로부터 학습자 자신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므로 정보 제시자로서의 교사는 정보를 수용하는 학습자의 뇌의 기능적 특성과 정보 수용의 개인차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좌·우 뇌의 기능차가 준 교육적 시사이다. 읽기, 쓰기, 셈하기에 치중하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단 한 쪽의 뇌만을 교육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 과정이 계열적,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활동이 언어적인 매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좌측 뇌에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도 뇌 편중(좌 혹은 우측

뇌 우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생은 좌측 뇌의 인지 과정을, 다른 어떤 학생은 우측 뇌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보다 잘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우측 뇌가 우세한 학생(right-brained student)이 좌측 뇌의 기능을 강조하는 학교(left-brained school)조직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좌측 뇌가 우세한 학생이 우측 뇌가 우세한 학생보다 학업 성적이 더 높았다는 필자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세째는 문제 학생은 정상 학생과 다른 인지 구조(cognitive structures)를 가졌다는 사실이 주는 교육적 시사이다. 학습 부진은 뇌 손상으로부터 개인의 여러 변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학습 부진과 뇌 기능과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 부진은 좌측 뇌가 우측 뇌의 기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무기능한데 기인된다. 그러므로, 뇌 연구자들은 뇌의 가소성(plasticity) 때문에 뇌의 기능적인 손상이나 弱화가 훈련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뇌 손상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충분한 보장은 없다. 그러나 학습부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뇌의 무기능에서 일어난 부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또한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과도 행동아(hyperactive child)도 뇌와 관련된 증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과도 행동아들을 진단, 치료하는 교사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뇌에 관한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네째는 뇌를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모델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교육적 시사이다. 뇌가 교육 과정 개발의 모델로서 가지는 몇 가지 가정이 있다.

첫째는 약한 쪽의 뇌 기능을 강화하고 훈련시키는 치료적인 프로그램(remedial program)을 개발하는 일이고, 둘째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형태에 적합한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며, 세째는 야구에서 포수가 양손을 사용함으로써 보

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공을 잡듯이, 좌·우측 뇌의 기능적 특성(both sides of brain function)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다.

#### Ⅳ. 결론 : 「뇌」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전제

뇌 연구의 결과가 미래 학습을 위해서 본질적인 원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교육학자나 학습 심리학자들로부터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발견들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 선행되어야 할 많은 과제가 뒤따르며, 더 많은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해 탐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뇌 연구의 결과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교사를 돕기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1) 학습 교사는 매일의 수업에서 어떻게 뇌 연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가? 또 이용될 자료는 무엇인가?

2) 기하 개발된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뇌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 또 균형있는 교육 과정(좌·우측 뇌의 기능을 다 같이 기를 수 있는)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3) 시청각 매체가 학생들의 우세하지 못한 뇌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가?

4) 종래의 평가 방법이 좌측 뇌 기능 편중인데 반해서, 뇌의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평가 방법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5) 뇌의 기능적 특성에 비춘 수업 형태로서 개별화를 강조하는데, 학습 규모가 큰 우리 나라 실정에서의 개별화 방안과 그 가치는? 또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은 개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는가?

교육의 실재를 개선하기 위한 뇌와 교육과의 관련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곧 학습을 이해하고 지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자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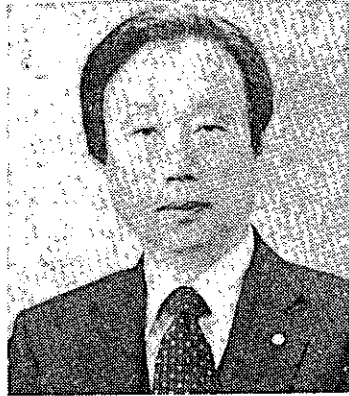
## 特 輯

# 2000年代의 社會發展과 教育의 課題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과학·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교육의 과제는 무엇인가? 밝은 내일을 기약할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 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구현,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은 교육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본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결과 제기된 교육의 과제를 특집으로 엮는다. <편집자 주>

## 2000年代의 韓國과 教育의 課題



文敎部 長官 李 奎 浩

교육은 우리의 인간성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한 사회의 構成員으로서, 한 국가의 國民으로서, 한 시대의 生活人으로서, 바르게, 뜻있게 살아 갈 수 있는 인간의 성숙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價値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 批判을 위한 교육 등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인 가치들을 위한 교육은 인간이 물질 문명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고,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은 인간이 體制의 奴隸가 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머리말

오늘날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의 발전에는 늘 미리 알 수 없었던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생동적인 變化의 狀況 아래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은 直線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拋物線처럼 흘러간다고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직선적으로 흘러간다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미래라도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미리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拋物線처럼 흘러간다면 미래는 우리가 미리 豫見할 수 있는 位置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미래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本質的으로 예견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主體인 인간의 자유 때문입니다. 역사는 因果法則에 따라서 機械처럼 展開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미래는 그 主體인 인간들의 자유 의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主體인 인간들이 어떤 미래를 創造하고 어떤 미래를 展望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現實的인 與件들을 떠나서 미래에 架空의 환상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인 여건들의 展開를 土臺로 해서 우리의 희망을 등불삼아 우리의 미래를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래 전망은 事實을 描寫하는 科學이라기보다는 바람직한 表象을 追求하는 藝術입니다.

## 2. 經濟成長의 趨勢

우선 우리가 2000년대의 한국을 表象해 볼 수 있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豫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여건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의 趨勢를 연장하면 2000년대 초에는 5천만이 될 것으로 豫測되고 국민 1인당 平均所得은 현재의 1천 6백\$에서 3천 7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國際金融專門誌인 유로머니(Euromoney)는 한국이 2000년대에는 經濟規模面에서 세계에서 20위 이내에 進入할 展望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義務教育과 中等教育, 高等教育을 합한 教育人口는 조심스럽게 늘어나간다면 현재의 1천 87만명에서 1천 1백 71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平生教育의 理念, 繼續教育의 體制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社會教育과 學校教育을 합한 教育인구는 전체 인구의 태반으로 看做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產兒制限을 통해서 인구의 增大를 抑制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2000년대 초에는 우리의 인구가 거의 5,000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나라의 대담한 開放政策과 국민의 海外進出은 더욱 촉진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世界經濟가 不景氣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科學과 技術의 발전이 확실하고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이 보장되어 있는 한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는 완만한 經濟成長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 나라의 國民總生産이 경상으로 63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74억\$이 예상되고 이대로 발전하면 2000년대의 초에는 경상으로는 8,200억\$, 1980년의 불변으로는 2,300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력이 선진국의 수준에 접근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역사 발전을 위해서 늘 중요한 役割을 하는 예기할 수 없는 변인들의 작용을 排除하고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의 여러 分野들에서의 미래 전망은 이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3. 周邊의 國際情勢

國際情勢는 현재 이미 생동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現象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第2次 世界大戰 후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온 東西 이데올로기 대립은 이제 천천히 힘의 均衡이 깨뜨러질 徵候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의 지나친 차이와 科學의 발전과 戰略的 技術의 발전 등이 그러한 徵候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東西對立은 2000년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고비를 넘길 것으로 豫想되는데, 그 東西對立의 고비가 지나면 理念的으로는 제3의 形態가 支配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共產主義의 體制가 그 非生産的인 沈滯性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打擊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본주의가 도덕적 인간성의 抵抗을 克服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貧困한 나라들과 豐饒한 나라들의 南北對立도 매우 생동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低開發 國家들과 發展途上 國家들을 포함한 第3世界 안에서는 地域別, 또는 그룹별 協力體制가 강화될 것이고 새로운 世界經濟體制와 正義로운 國際關係에 대한 요청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先進產業 國家들 사이에는 技術開發과 市場支配 등을 통한 世界經濟의 주도권 爭奪戰이 치열해 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東西對立보다 南北對立이 情勢變化의 더 강한 변인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더욱 緊密하게 相互依存하게 될 世界社會 안에서의 國際政治體制는 매우 複雜해질 것으로 豫想됩니다. 교통과 통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모든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相互依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국가들 사이의 利害關係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狀況은 결국 모든 나라들에서 國內問題와 國際問題의 區別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따라서 인류의 共同責任意識도 강화되면서 모든 민족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민

족주의 의식도 강화될 것입니다. 食糧, 資源, 公害, 人口, 平和 등을 위한 共同責任意識과 더불어 민족적 뿌리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正體性的 確立, 그리고 번영을 위한 競爭의 치열 등으로 인해서 민족주의 의식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韓半島 안에서의 南北對立의 문제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決定的인 고비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80년의 南北韓의 經濟力을 비교하던 國民總生産이 한국이 565억 \$인데 북한이 135억 \$로서 4.2대 1이고 국민 1인당 소득이 한국이 1,481 \$인데 북한은 758 \$로서 2대 1의 비율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1982년 현재로서 더욱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차이는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만약 자기들의 힘만으로 남한을 전면 공격하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에게 불리해지고, 그리고 우리 內部에 결정적인 분열과 崩壞의 契機가 마련되지 않는 한 침공의 기회는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초조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몇년 동안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중공이 그들의 현대화와 産業化의 능률을 위해서 體制의 성격을 현재의 조직대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일본이 천천히 再武裝을 하게 되면 우리 周邊의 狀況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4. 民主主義의 土着化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가 선진국들의 대열에 접근하게 되고 전체 국민의 生活水準도 더욱 향상되면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 土着化도 상당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生活水準의 향상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機械的인 因果關係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깊은 聯關性을 가진 것은 사실이며 또한 國際環境과 시대적 狀況이 민주주의에 발전을 더욱 要請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국민이 이를 希求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헌법은 大統領 任期 7년에 單任을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정치적인 變革이 없으면 2000년대 초까지 세 번이나 새로운 大統領을 뽑아야 되고 따라서 세 번이나 政權交替를 해야 되는 셈입니다.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꾸준한 政治安定을 전제로한 憲法에 의한 세 번의 정상적인 政權交替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 결정적인 변인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우리가 반드시 成就해야 될 課題임과 동시에 또한 회피하지 못할 宿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설과 발전의 途上에 있는 第3世界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自由放任을 통해서 토착화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自由放任을 통한 混亂은 결국 統合된 노력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건설과 발전을 不可能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터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제 3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不利한 조건들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되고 여러 가지 植民主義的인 잔재들과 帝國主義的인 작용들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課業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모든 力量의 統合과 국가적 體制의 효율성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러한 統合力과 효율성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적 目標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국민적 참여, 그리고 理性的 秩序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노력의 誘導와 創出은 민주주의적으로 意識化된 政治勢力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이러한 政治勢力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領導力을 發揮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左右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를 우리 역사의 傳統과 우리 나라의 土壤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西歐

민주주의의 단순한 移植이나 안일한 모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政治生活은 우리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환경, 그리고 경제적 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政治生活은 다른 나라들의 模型을 移植하거나 모방하기는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人性과 態度를 위한 교육을 위시해서 우리의 社會生活의 여러 分野들에 걸친 민주주의를 위한 創意的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世界社會의 構造的 混同과 産業化의 劃一化를 통한 植民主義的 작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傳統文化의 正體性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保守的인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발전을 위한 資本主義의 活力을 십분 이용하면서도 人道的이고, 道德的인 側面에서 그 缺陷들을 補完하면서 社會正義를 具現하려고 하고, 또한 南北對決의 상황 아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사회적인 성격을 더 鮮明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수 없는 難關들을 克服해야 되기 때문에 民族意識을 통한 통합의 강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연히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가 토착화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保守的, 社會的, 民族的 성격들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게 될 것이고 政黨들도 더 선명한 理論들을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輿野 對決을 위한 選舉政黨에서 理念政黨의 形態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 5. 教育體制의 改革

이상과 같은 國際情勢, 經濟成長, 國內政治에 대해 미래 전망 아래 앞으로 우리의 교육의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현재 세계적인 教育改革의 趨勢

에 따라서 그 體制를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早期教育의 改革, 義務教育의 延長, 職業教育과 基礎教育의 연결, 大學教育의 改革, 繼續教育의 擴大 등 세계적인 趨勢에 발맞추어 우리의 教育體制를 정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나라 教育體制의 정비는 全人教育과 平生教育의 理念을 전체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適齡 아동들이 幼兒教育을 받게 될 것이고, 의무 교육은 9년으로 延長되어서 중학교까지를 포함하게 될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한 基礎教育과 소질에 따르는 職業技術教育을 받게 될 것이고, 대학에서 勉學의 質은 현저하게 향상되어서 국제적인 競爭力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官公署와 企業體를 위시한 모든 社會機關들과 社會團體들이 繼續教育을 위한 制度들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과 중등학교 학생들의 學習負擔이 지나치게 많았고 대학생들에게는 學習負擔이 매우 적었습니다. 특히 중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學習負擔이 過重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갑자기 그 무거운 學習負擔에서 해방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입학만 하면 큰 잘못이 없는 한 그대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반드시 勉學에 열중해야 될 制度的인, 傳統的인, 또는 環境的인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나친 學習負擔에서 해방된 우리의 대학생들은 그들의 젊음을 불태우기 위해서 每學期마다 祝祭와 운동회를 즐겼고, 그리고 政治參與의 구실 아래 기획만 있으면 騷擾를 일삼고 休講, 家庭實習, 休校를 年中 行事처럼 되풀이 했습니다. 知識과 技術이急速하게 발전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이러한 非生産的인 弊習은 우리의 학문의 進境들을 知性的인 불모의 狀態로 몰아넣어서 깊이 病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나라 교육의 病的인 體制는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학교 주 5일 수업제의 실험, 초·중등학교들의 敎育課程 改編, 대학 입시 제도의 改革과 과의 금지 등으로 초·중등학교들에서의 學習負擔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대학에선 卒業定員制의 實施와 學園騷擾의 克服을 통한 家庭學習과 休校의 배제를 통해서 勉學雰圍氣가急速하게 高潮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어린 초·중등 학생들은 學習負擔에 짓눌림이 없이 均衡있게 발달하게 자라나면서 학습에 저항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학습에 趣味를 느끼면서 스스로 自主的으로 創意的인 學習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더 열심히 勉學에 열중해서 우리의 학문과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競爭力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00년대 초까지 우리가 만약 大學敎育의 質的인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敎育課程 改編, 敎授·學習方法 改善, 敎授의 資質 향상과 시설의 현대화에 힘쓰게 되면 2000년대의 한국 대학들은 科學과 技術 그리고 모든 학문들에서 매우 생산적인 知性的 殿堂이 될 것이며 우리의 국력과 문화를 선진국의 대열로 끌고 가는 牽引車 役割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敎育體制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체적으로 彈性性있게 운용됨으로써 敎育적인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自律性을 누리고 創意性을 發揮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子女敎育觀이 건전해지고 우리 사회의 雇傭體制가 학력 위주에서 실력 위주로 바뀌어지고, 敎育機關들이 정상화되고, 내실화되면서 平準化 施策과 卒業定員制는 그 形態를 더욱 합리적으로 補完하게 될 것입니다.

## 6. 正體性과 國際性的의 調和

세계가 하나의 生活圈이 되고 국제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제 2세 국민들을 그 正體가 분명한 인간으로 敎育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하나의 生活圈이 되고, 따라서 국제 협력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국민을

뚜렷한 正體性을 잃어버린 그러한 흐리멍덩한 세계인으로 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傳統 속에 담겨있는 價値들을 자라나는 세대에 내면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분명한 한국인으로서의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敎育시켜서 世界社會에 내놓아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화는 큰 섬포니와 같아서 모든 문화 민족들이 그들 문화의 正體性을 調和롭게 保存해야 인류 문화는 위대한 和音을 創出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 질수록 어떤 민족이든지 그 문화적인 正體性을 잃으면 하나의 민족 국가로서의 存立도 威脅받게 될 것입니다.

흔히 현대인의 하나의 病弊로 指摘되고 있는 正體性의 혼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兒童들을 우리의 문화적인 正體性과 연결시켜서 그들의 인격적인 정체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것은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인간을 敎育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인격적인 正體性은 다른 인간들과의 개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이룩되고 드러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의 正體性도 다른 민족들의 문화들과의 개방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개발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確保하고자 하는 인격적인 또는 문화적인 正體性은 세계인의 資質과 인류 전체의 문화와의 調和를 前提하고서만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敎育에 있어서는 개방적 교류와 국제적 理解와 세계적인 競爭이 여러 가지 側面들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방적인 교류를 排除하고 우리가 문화의 正體性이나 인격의 正體性을 생각할 수가 없고, 국제적인 理解를 배제하고 우리가 오늘날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는 없으며, 세계적인 競爭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발전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접근하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敎育은 2000년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선진국들과의 敎育 교류를 위해서 더욱 그 體制를 효과적으로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科學과 技術과 外國語 등의 敎育을

위한 教授와 教師의 교류 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를 위한 制度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이러한 개방적인 교류가 頹廢風潮를 위시한 外國文物의 무조건 영입을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正體性的 확보를 위한 교육적 정신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指向하는 국제적인 이해와 개방적인 교류는 문화적 식민주의를 위해서 문을 열어 버리고 우리 자신을 拋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하려는 세계인은 인격적인 알맹이가 없고 正體성을 잃은 그런 無國籍者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전망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노력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을 말합니다.

## 7.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知識과 情報의 爆發의인 增加의 趨勢는 더욱 加速化되고 국제 사회에서 頭腦競爭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產業構造와 國防力 향상은 거의 완전히 頭腦와 技術에 의존하는 形態로 轉換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科學과 技術의 開發과 高級技術人力の 養成은 미리부터 교육의 매우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政府는 현재 科學技術教育의 振興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1차 연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치원 교육 때부터 科學的인 頭腦를 기르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통해서 科學教育을 더 충실하게 함으로써 科學技術人力の 底邊을 擴大하고 실업 고등학교와 실업 전문대학에 優秀한 학생을 誘致해서 職業技術教育의 水準을 높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科學技術 教師와 教授들의 資質 향상과 科學技術教育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인 投資增大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科學技術教育의 革新을 위한 制度를 補完하고 科學技術教育의 振興을 위한 研究體制도 확립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核心 戰略 產業 技術 개발을 위해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그 基盤을 造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科學技術

教育의 振興을 통해서 賦存資源의 貧弱, 인구의 膨脹, 國際競爭의 치열화, 고급 인력의 부족 등 우리가 당면한 問題들을 克服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科學的 素質과 技術의 才能을 早期에 계발할 수 있는 과학놀이 器具 등을 풍부하게 연구 개발하고 과학놀이 指導資料도 충분하게 보급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科學教育을 위한 機資材도 질적으로 保障된 것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현재 輸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고급 精密 科學機資材도 국내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빈 教室과, 講堂 등이 학교 시설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시작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90년대에 이르면 科學實驗室을 위시한 實驗實習施設 등이 각급 학교 시설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984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科學基礎課程 全科目이 必須化될 것이고 科學教師들이 實驗中心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업 시간은 減縮되고 實驗室에는 補助人力이 配置되고 實驗指導書도 開發·普及될 것입니다.

대학들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理工系로 유인될 것이고 理工系의 優秀教授들이 海外로부터 誘致될 것이며, 그리고 理工系 教授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 시설과, 연구 여건과, 연구비가 보장될 것입니다. 科學技術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는 國際交流와 情報交換이 더욱 능률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戰略的인 核心 科學技術의 연구를 위해서는 產業體들의 研究所와 政府出捐 研究所와 대학들의 연구실이 그 協同體制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高級頭腦의 誘致와 필요한 情報의 入手 등을 위해서도 政府와 產業과 學界가 공동으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科學과 技術은 特定한 部門들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수준을 바짝 뒤따라가거나 따라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科學技術教育을 위한 振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인간은 인문적인 환상과

靈感을 통해서 科學的 創意力을 發揮할 수가 있기 때문에 人文教育을 완전히 떠난 科學技術教育은 그 自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8. 人間教育의 課題

우리는 2000년대의 한국을 전망하면서 物質文明의 발전이 가져온 오늘날의 시대적인 문제들과 산업화가 가져온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深刻해질 것을 豫想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道德의 沒落, 文化的 價値들의 퇴색, 그리고 인간성의 疎外 등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와 기계화 등에 依해서 밀려나게 될 도덕과 문화와 인간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 人間教育을 위해서 인류의 傳統文化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科學과 技術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과 그리고 인류가 科學과 技術에 依해서 威脅받고 있다는 것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인간성을 成熟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의 構成員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시대의 생활인으로서, 바르게, 뜻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成熟을 指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價値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 批判을 위한 교육 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인 가치들을 위한 교육은 인간이 物質文明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고,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인간이 體制의 奴隸가 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物質文明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들과 體制들의 對立과 政治勢力들의 갈등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훌륭하게 克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성의 成熟을

위한 인간 교육이 매우 緊要한 과제입니다. 2000년대의 한국을 전망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문제입니다.

## 9.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대의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樂觀的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周邊의 國際政勢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돌발적인 事態가 일어나는 것을 排除했고, 둘째로는 우리의 經濟成長이 거의 현재의 趨勢를 持續하는 것으로 가상했고, 셋째로 민주주의의 토착화도 현재 우리가 바라는 때로 이루어져 갈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이러한 전제들 아래 우리는 비교적 樂觀的인 展望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周邊의 國際政勢는 큰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어떤 돌발적인 事態의 발생을 排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긴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經濟成長도 현재의 趨勢를 그대로 持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 만약 成長의 趨勢를 멈추게 되면 資本主義 經濟의 장점인 活力과 生動性을 잃게 되어 體制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體制에 대한 普遍的인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상황 아래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도 우리가 狀況의 도전에 대해서 創意的으로 對應하고 理性的인 秩序에 의해서 引導되지 않으면 놀라질 수 있는 성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딪힐 深刻한 試練의 克服을 위한 단호한 決意와 굳은 단결의 호소없이 장미색의 전망만 제시하는 것은 無責任한 일이라는 것을 添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밝은 전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深刻한 現實認識이 缺如된 미래 전망은 空虛한 환상이 될 것입니다. ㉔

(이 글은 基調講演에서 발표한 내용의 全文이다.)



# 政治發展

朴 奉 植 \*

우리 나라에서 정치 발전의 개념은 한국인이 국민 또는 민족 성원의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정치과정 또는 정치 기구를 통해 실현 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희망, 또는 요구를 狀況的으로나 制度的으로 가능케 하거나 충족시키는 것이다.

정치 발전에 관한 견해는 ①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그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② 국민의 정치 참여를 포함한 정치 발전을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정치 발전을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 그 내용은 ① 민족 국가로서의 통일과 正統性의 확보, ② 근대 국가로서 경제적 興件의 준비와 사회적인 組織化, ③ 국민의 정치에 적극 참여, ④ 복지 사회로의 指向 등이 포함된다.

이 네 가지 내용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통일의 여망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숭고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통일은 타의에 의해 분열된 민족의 분단을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소하고 민족적 再結合을 달성하여 이로써 민족 국가로서의 체제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 분열이 열강들의 세계 정책과 관련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적 차원에서 노

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동시에 이 지역의 평화에 이어진다는 認識을 周邊 국가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일이며, 그러므로써 역사의 어느 轉換點에서 이를 실현시킬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치 체제의 정통성 문제는 法統의 차원과 정치적 정통성의 차원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3·1 독립 운동과 이를 위임한 임시 정부에서 법통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적 의미에서의 정통성은 어느 체제가 더 많이 국민의 자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민족 통일의 주체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으며, 이 정통성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근대 국가로서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준비에 있어서는 과거 10여 년간의 경제 성장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적 一體感의 형성에 성공한 것을 국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셋째, 국민의 정치에의 적극 참여라는 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폭발적인 증대를 보여 왔다. 국민의 정치 참여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는 동안 전승국들의 정치 이론이 민주 정치였기 때문에 국민 주권과 국민의 參政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 제도는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여기

\* 서울대와 동대학원 졸업. 정치학 박사. 현재 서울대 교수,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사무총장. 「주한 미군 철수 이후의 한국 관계 전망」 「중공의 대외 정책」 등의 저서와 논문 다수

서 중요한 것은 그 이념은 받아들여져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그 이념을 가능한 한 실현하려 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끝으로, 사회 복지제로의 지향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치 발전의 당연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 5공화국 정부가 그 主要 國政指標의 하나로 「福祉社會에 建設」을 들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발전 단계에 있어 하나의 里程碑가 될 것이다.

이 중에서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에서는 통일 문제와 국민의 정치 참여 문제가 특히 중요시 된다.

우리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긴박감을 주는 것은 통일 문제이다. 통일은 우리의 주도하에 민족을 통일하는데 있다. 객관적인 政勢에서 언제가 그 시기인가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항상 통일 기회의 현실성은 존재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통일의 기수로서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客觀的 政勢의 조성은 列強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이를 우리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그 제도화는 정치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참정에 임하는 국민 각자의 사회 생활에서 도덕, 또는 公德的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가능하다. 이는 제 5공화국 정부의 국정 지표인 「민주주의의 토착화」와도 일치되는 내용이다.

2000년대의 한국 정치 발전은 이상과 같은 민

족 통일과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질 전망이다.

통일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의 구체적인 實現을 위한 對備를 하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게 되는 경우,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단계에 가기 전후해서 증공과 소련에 대한 정책을 현재의 대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이 때까지 민주 정치를 토착화시키지 못한 것이 방법이 없어 못한 것은 아니다. 내외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정치 기반이 形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2차 대전 후 민주 정치를 새로 시작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미국의 절대적인 안전 보장과 그 위에 새로운 안정된 정치 세력의 형성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항상 流動的이었고, 또 광복 후 美軍政 기간에도 안정된 정치 세력의 형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와 좋은 대조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2000년대를 향하는 우리 나라 정치 발전의 과제는 안정된 민주 정치 세력의 조성과 그 제도화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회 단체의 자율적 성장과 정당 제도의 발전 등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정권 교체는 안정된 동질성을 띤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 이것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을 형성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정치의 운영도 議會中心 보다 政黨中心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

(이 글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요약이다.)

# 經濟發展

具 本 湖\*

21세기의 세계 경제는 국가간 상호 의존 관계, 선진 제국의 성장력, 석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 및 국제 금리 등에 근본적인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 관한 전망을 확실히 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① 상호 의존 관계는 80년대 초기의 경제적 진통을 교훈 삼아 8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개선되어 갈 것이며, ② 국제 금리도 정상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③ 석유, 식량 및 주요 원자재의 상대 가격에 대해서는 80년대 초반의 하락 내지 안정적 경향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엇갈린 복합적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며, ④ 선진 제국의 성장에 대해서도 기술 혁신의 차원에서나 정신적 활력화 차원에서나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경제 전망을 최근 UN기구 및 국제기구 등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世界의 GNP(1980年 不變價格)

(單位: 10億 \$)

區 分	1981	1986	1991	2001	1982~2001 年平均 增加率(%)
全 世 界					
高位成長		14,779.4	17,369.9	24,042.6	3.3
中位成長	12,583.5	14,395.5	16,476.3	21,615.6	2.7
低位成長		14,019.9	15,625.1	19,427.5	2.2
先 進 國 <sup>1)</sup>					
高位成長		11,626.5	13,478.3	18,113.7	3.0
中位成長	16,029.1	11,347.0	12,838.1	16,433.8	2.5
低位成長		11,072.9	12,225.4	14,902.7	2.0
先 進 國 以 外 <sup>2)</sup>					
高位成長		3,152.9	3,891.6	5,928.9	4.3
中位成長	2,554.5	3,048.5	3,638.2	5,181.8	3.6
低位成長		2,946.9	3,399.7	4,524.8	2.9
〈人口〉(百萬名)					
全 世 界	4,494	4,915	5,363	6,295	1.70
先 進 國	1,138	1,176	1,213	1,278	0.58
先 進 國 以 外	3,356	3,739	4,150	5,017	2.03

1) 北美, 日本, 濠洲, 西歐 先進諸國, 南阿聯邦

2) 1) 以外 地域

\* 서울대와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현재 한양대 대학원 부원장. 『80년대의 세계 경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환율의 역할』 등의 저서와 논문 다수.

### 1) 세계 GNP의 전망

1982—2001년 간에 세계의 GNP는 연평균 2.7% 내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나 선진 제국의 성장(2.5% 내외)보다는 그 이외의 제국이 더 앞질러(3.6%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1981—1985년 간의 저성장율에 비해 1986—1991년 간에는 착실한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나 전기간을 통해 보면 60년대는 고사하고 70년대에 비해서도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 2) 세계의 인구 및 남북 문제의 심화

선진 제국의 인구는 대체로 안정화될 것이나 그 이외의 국가(특히 Africa 및 중남미 諸國)들의 높은 인구 증가율로 세계 인구는 2000년 까지 계속 높은 율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결과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비교적 높은, GNP 성장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그 이외 국가간의 1인당 GNP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남북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세계 무역의 전망

세계 무역 신장은 연평균 3.5% 내외, 세계의 공산품 무역 신장은 연평균 4.8% 내외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60년대에 비하여 절반도 되지 못하는 둔화된 신장율이며, 70년대에 비해서도 신장율이 둔화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 4) 석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최근의 불황으로 인해 안정 내지는 하락을 보여 온 석유 및 주요 원자재의 상대 가격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와 같은 급격한 상대 가격의 상승은 없을 것이며 품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상대 가격의 상승은 약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에, 향후 2년 간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① 절대 인구의 증가와 경제 활동 인구의 급증 ② 대외 부채의 누적 ③ 석유 등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 증가 ④ 중진국 위치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 운영에 큰 제약울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도 산업 사회의 도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최소한 6% 이상)과 국제화의 확

대, 산업의 고도화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근대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 역할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재정립되고, 기업 집중 심화, 편중 여신, 과도한 차등 산업 지원 방식 및 부문간·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 등이 시정되어야 하고 경제 및 경영 운영 방식도 효율성, 자율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촉진을 위해서는 인적 잠재력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인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① 교육의 고도화 ② 과학·기술 및 경영·관리의 혁신 ③ 여성 지위의 향상 ④ 산업 고도화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의 과제로는,

첫째, 교육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의무 교육 연한 연장율을 포함한 교육 기회 균등의 확대 ② 과학 기술 및 실업 교육의 확대 ③ 교육 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와 교원의 자질 향상 ④ 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에 대응한 교육 내용의 재편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 및 경영·관리의 혁신을 위하여 과학·기술인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자발적 동기를 제고하며, 공동 연구와 상호 협동을 통한 과학 기술 연구 개발의 수요자(산업계)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투자 효율화와 인력 활용 효율화란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며, 취업에 있어서 남녀간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 고도화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법규나 경제개혁의 합리화·근대화는 물론 인간 관계, 사고 방식, 가치관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경제 분야의 성장은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균형적인 근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 ㉓

(이 글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요약이다.)

# 社 會 發 展

金 泳 謨\*

2000년대의 한국 사회 발전은 사회 변동 및 발전에 관해 대립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機能論과 葛藤論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다.

기능 이론은 첫째로, 조화를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기능 이론은 가장 支配的인 사회학 이론이면서 지난 30년간 사회 변동에 대하여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능 이론은 사회를 체계로 보려는 이론이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체계가 체계의 維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들 간의 相互依存性的의 統合된 結合으로 본다. 이러한 요소들은 환경에 있어서 그러한 체계의 적응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기능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점은 균형, 또는 체계 유지 및 통합성의 개념이 체계와 체계 변동의 개념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

Parsons는 사회 변동을 체계 내의 변화와 체계간의 변화로 구별하였다. 전자는 소규모의 변동인데 이것은 사회 조직의 持續的 단위의 정상적인 產物이고, 후자는 기본적인 유형이 새로운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체계는 慣性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生成하는 힘은 外來的인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불안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체계를 침해하는 변화 요인은 긴장을 조성하며, 이것은 반대로 적응에 대한 派生的 긴장을 창조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은 안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심한 변화를 자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혼돈에 대한 반응으로서 구조 변동의 지배적 範疇는 構造分化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모델은 변화를 외재적 변화에 대한 체계의 적응, 구조적·기능적 분화에 의한 성장과 체계 성원에 의한 성장과 체계 성원에 의한 쇠퇴를 속성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체계성의 성장을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사회 체계성의 성장은 分化와 專門化, 그리고 상호 의존성의 증대에서 측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발전의 永續的인 과정에 있어서 변화를 追跡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산업화의 결과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분석법은 과거와 현재, 신·구, 또는 전통과 근대의 價値, 變數, 質 및 構造를 대조시키는 것이다. 만약 사회 체계성의 성장을 사회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성장의 개념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사회 발전의 상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000년대의 우리 사회 변화를 이러한 기능론적 관점에서 예견해 보면 사회의 역할 分化率이 현재보다 15~30%가 증대되어 전체 사회 구조

\* 서울대와 동대학원 졸업. 문학 박사. 현재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원장. 『한국 사회의 계층 연구』 『한국 지배층 연구』 등의 저서와 「한국 독립 운동의 사회적 성격」 「한국 반공 정책에 관한 연구」 등 논문 다수.

의 2/3가 分業化·專門化 된다고 볼 수 있으며, 都市化도 급격히 추진되어 100년 후에는 超過剩 상태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0년대의 우리 사회는 教育化·科學化·技術化 등이 이에 따르지 못하게 되어 文化遲滯 現象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아노미와 인간 소외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교육화 와 과학화를 위한 파감한 정책 개발이 요망된다.

社會指標의 變化率

사회 지표	1975년	2000년	2075년	연평균 변화율
都市化(인 구)	48.4	78.2	167.4	1.195
工業化(노동자)	43.4	74.4	167.4	1.24
官僚化(피용자)	40.7	54.7	96.7	0.56
教育化(대졸자)	5.3	6.1	24.3	0.19
科學化(기술자)	2.9	5.8	14.6	0.117

갈등 이론은 Marx의 견해와 같은 고전적 갈등 이론이 있고, Dahrendorf, Coser의 견해와 같은 新葛藤 理論이 있다. 갈등론자는 사회의 갈등이 支配와 從屬의 이해 관계의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하였다. 利益差異는 전자의 경우 생산 관계에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 機威關係, 또는 心理的 關心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갈등론자는 이러한 이익 또는 관심의 차이에서 나온 사회 갈등이 사회 변동 및 사회 발전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사회 갈등의 성격도 Marx는 폭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Dahrendorf는 산업 사회에 있어서 잠재성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사회적 갈등이 현재적 利益集團에서 발생되지만, 후자는 準集團, 즉 관료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처럼 격렬하지 않은 것이다. 準集團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役割分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나, 이익 집단의 이익 차이는 보다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

의자는 暴力的인 갈등을 통하여 社會變革을 주장하지만 신갈등 주의자는 오히려 사회 갈등의 제도화, 즉 정책과 입법화에 의하여 사회를 改革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전자가 현실 부정의 革命論이고, 후자는 현실 保守의 改革論으로서 모두 進歩와 福祉라는 가치를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古典的 갈등론의 관점에서는 사회 발전을 폭력적 갈등의 증대에서 측정할 것이고, 신갈등론의 관점에서는 사회 갈등의 제도화, 즉 입법과 정책에서 측정할 것이다.

사회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 성원들의 이해 관계, 또는 불평등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갈등론자들이 말하는 지배와 종속 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階級構造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론에 의하면 2000년대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는 勞動者階級이 가장 많이 증가되고 그 다음은 新中產層이 많이 증가하는 반면 舊中產層은 몰락함으로써 사회 계급의 兩極化가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급증은 산업 갈등과 사회 갈등에 있어서 폭력성의 증가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2000년대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跛行的인 계급 구조와 산업 갈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이 요망된다.

사회 발전의 개념은 기능론의 사회 변화와 갈등론의 사회 복지를 통합한 개념으로 양적 성장과 분화 뿐만 아니라 행복·만족감과 같은 질적 복지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2000년대의 사회 발전은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의 統合 위에서 사회 발전의 방향이 제척 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요약이다.)

# 科學·技術發展

金 貞 欽\*

현대 사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빨리 변화해 간다는 사실이다. 이 변화는 너무도 빨라 때때로 우리가 미처 그것에 대응할 대책이나 정신 상태를 가다듬기도 전에 우리들 눈 앞에 나타나 우리에게 「未來의 衝激」을 안겨 준다.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말하는 이 미래의 충격으로 사람은 앞날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어 제 갈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지혜와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세계 제 2차 대전을 계기로 樣相은 크게 달라졌다. 전후에 일기 시작한 석유 화학 공업·자동차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업 사회가 실현되었고, 여기에 덧붙여 전자 공학이 이 모든 것을 加速化시켜 버렸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970년부터, 한국은 81년부터,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소위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이 파도쳐 들어 온 것이다.

제 3의 물결은 너무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 3의 물결이 만들어 내는 미래 사회도 학자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다.

예컨대 물리학자 오네일(Gerald O'Neill)은 宇宙都市 또는 宇宙植民島를 만들어 우주 공간을 개척해 나간다고 해서 宇宙時代(space age)라 부르는가 하면 전자 공학의 발달로 정보 산업·통신 기술·컴퓨터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 해서 電子工業 時代(electronic age), 情報化 時代(information age)라 부르기도 한다. 경제학자

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전자 공학과 기술이 합쳐서 공장이 로버트화되고 모든 기계가 頭腦化되는 시대라 하여 「機電 一體의 時代」(technetronic=technology+electronic)라 부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의 유명한 文化史學者인 마셜 맥루한(Marshall MacLuhan)은 통신의 발달로 지구상의 모든 지점이 마치 한 마을 한 촌락처럼 至近 거리에 있게 된다 해서 「地球上(global village)의 時代」라 불렀으며, 경제학자 케네드 보울딩(Kenneth E. Boulding)은 이 地球村을 하나의 우주선에 비유하여 「宇宙船 地球號(spaceship 'the earth')의 時代」라 표현하고 있다.

21세기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Daniel Bell)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미래 사회는 현재의 공업화 사회를 넘어서 후기 공업 사회, 또는 탈 공업화 사회(post industrial society)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소련 학자의 말과 같이 과학 기술 혁명(scientific technological revolution)의 시대, 알빈 토플러가 말하는 초기술사회(super industrial society)가 될 것이다.

또 이 시대는 가치관이 多樣化·多元化되고 사람마다 제각기의 철학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未來觀 등등을 갖는 多價値觀 時代(multichannel society)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시몬 프레이저 대학의 사무엘 알로노프(Samuel Alonoff) 박사는 이 시대를 「社會進化의 時代」(age of social-evolution)라 불렀고, 데니스 가보르는 「成熟社會」(mature society)라 불렀던 것이다.

\* 서울대와 동대학원 졸업. 미국 로체스터 대학 이학 박사. 현재 고려대 교수. 『자연 과학 개론』 『진로의 조언』 『기술의 발달』 등의 저서와 논문 다수.

어쨌든 다가올 18년 후의 세계는 현재로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있는 세계일 것이 틀림없다. 사실 지난 20년, 또는 18년 전에 우리 나라가 어떤 형태였는가를 되돌아 본다면 18년 후의 세계가 어떠한지라는 것을 어렵듯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지만(약 20년 전) 심리학자들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매년 5%씩의 지식은 쓸모가 없게 되어 망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20년 전과 달라 템포가 빠른 오늘날에는 이 5%는 어쩌면 10% 이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마저 있다. 어쨌든 5%씩 지식이 바뀐다면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지식 체계의 50%는 쓸모가 없게 되고 새로운 50%의 지식이 추가된다.

어쨌든 이렇게 지식이 10년 사이에 50%씩 줄어든다면, 학교 교육이 목표로 해야 할 커리큘럼도 이 사실의 고려 위에 짜여져야 한다. 즉, 학교 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나 기계적 암기를 요하는 내용보다는 每事에 깊이 思索하는 방법과 습관, 原理的인 기본 지식,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데 힘을 써야 한다. 그리하여 이 변화 무궁한 세계 속에 졸업 후 혼자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새 지식을 흡수하고 소화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의 기본 원리와 사색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하다.

지금 세계는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이 휩쓸고 있다. 예컨대, 81년부터 이미 국산 마이크로 컴퓨터가 출현했고 그 일부는 수출까지 되고 있다. 또 3개 국내 회사가 팩시밀리(facsimile) 판매에 들어 갔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가 대중화될 것이 예상된다. 또 영상 전화(picture phone), 속된 말로 표현하면 TV 전화도 곧 대중화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VTR, VDP 등 영상 녹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30cm 직경의 얇은 레코드판 내면에 10만 8천장의 그림이나 문서 내용을 수록해 둘 수 있고, 이 그림을 TV 나 영화처럼 連續모션으로도 볼 수 있으며 靜止畫面으로도 볼 수 있다. VD 한 면에 있는 5만 4천줄의 각 줄마다 TV 화

면 한장분의 그림이 들어 있다. 이 그림, 또는 책장 하나 하나에는 00001번부터 54000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어 random access(任意檢索)가 가능하다. 또 전체를 99개의 chapter 별로 검색할 수 있는 章檢索機能도 가능하다.

이것이 교육 기구로 대중화된다면 그 영향은 옛날의 시청각(AV) 기재보다도 더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컴퓨터와 통신 및 映像技術이 발달되는 결과로 교육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다. 특히 과학 교육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컴퓨터의 시뮬레이션(Simulation, 模擬實驗) 기능을 살린다면 物理法則, 化學法則, 生物法則 등을 그 원리까지 규명해 가면서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990년대, 또는 늦어도 2000년대가 되면 국민학교 학생들은 초보용 워드 프로세서를 써서 국어·산수 등을 배우게 될 것 같다. 自然科 授業 시간에는 VD와 VDP 또는 VTR이 아름답다는 천연색 화면을 통해서 生態學·物理學·化學·地學 등등 갖가지 자연 공부를 시켜 주게 되고 학교나 가정에는 컴퓨터 학습기, 또는 컴퓨터 가정 교사가 학생들의 복습과 예습을 도와 줄 것이다.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컴퓨터가 진출하여 갖가지 영상 기기·통신 기기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가계부 기입, 화재 관리 등에서 부재시 전화 응답, 한 週 분의 메뉴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의 일을 도와 줄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자동화 기계·영상 기기·통신 기기 등이 생활화 되면, 그 動作原理에서 應用法에 이르기까지의 갖가지 사실을 교육해 주는 것도 미래 교육 중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과학 시대에는 과학 과목은 국어나 수학 이상으로 중요 과목으로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진출한 바와 같이 모든 교육은 미래에 대한 vision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데 있다. 다가올 미래 세계를 爭奪해서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룩하게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넓은 視野를 주고, 어떤 미래 행동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본 원리와 응용력을 키워주는데 과학 교육의 重點이 주어져야 한다. ㉠

(이 글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요약이다.)



# 家庭 教育

安 仁 熙\*

## 1. 家庭과 그 다양한 形態

21세기에 가정은 존재하는가? 혹은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도전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의 장구한 전통적인 大家族 단위의 가정이 불과 수십년 사이에 核家族으로 분화되는 가정에서 받은 충격과 일반 사회, 문화, 경제 조직의 급격한 변동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分化過程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 오는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人類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삶을 유지해 왔다. 가정의 형태나 구성 요소는 나라와 시대, 그리고 民族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생활의 본거지는 여전히 가정이라고 하겠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가정의 기능이 변화하고 그 구성원의 수가 적어지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짧아지긴 했으나, 인간이 삶을 계속하는 한 가정은 존재할 것이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가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그리고 낯선 모양의 가정이라도 존속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산업 체제가 발전되고 과학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달되고, 가정 이외의 공동 생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종속 보존의 본능이 있는 한 사람은 그의 血緣家族을 만들고 함께 살

기를 원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그와 같은 본능적인 욕구가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어떤 형태의 가정 생활로 존재하느냐에 있고,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을 갈망하는 정도에 따라 어떤 형태가 가능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오늘의 가정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정과 교육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오늘의 다양한 결혼 형태를 알아 보기로 한다.

Skolnick은 그의 저서 『결혼과 가정의 탐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혼 형태를 소개하면서 내일의 가정 생활의 다양성을, 그리고 미래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즉, 여러 가지 결혼 형태가 하나의 단순한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했다. 행복한 가정들은 대개 비슷하다라는 말은 하나의 神話이며 이는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이란, ① 싸움의 습관화된 결혼 생활(conflict habituated marriage) ② 생기 없는 결혼 생활(devitalized marriage) ③ 소극적 적응의 결혼 생활(passive congenial marriage) ④ 생기 있는 결혼 생활(vital marriage) ⑤ 전체적 결혼 생활(total marriage)의 다섯 형태인데, 이는 Cuber와 Harroff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

첫째, 싸움이 습관화된 결혼 생활이란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일어날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것 때문에 결혼을

\* 이화 여자 대학교와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수학. 현재 이화 여자 대학교 교수. 『교육 원리』 등의 저서와 논문 다수.

해체시킬 수는 없는 경우이다. 부부는 물론 다른 가족들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부부싸움이 그들을 묶는 끈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생기 없는 결혼 생활은 대체로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 결혼한 부부들에게 흔히 있는 것으로 세월이 가면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서로가 시들해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도 결혼 생활을 파괴할 만큼 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저러 계속이 된다.

셋째, 소극적인 적응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는 경우인데, 당초부터 상대방에게 특별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뜨거울 것도 삭을 것도 없는 다만 결혼이 편리하고 안정된 삶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지속시킨다. 이들 부부는 대개 다른 것에, 예를 들면 사회적 활동이나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라 일종의 功利的인 결혼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네째, 생기 있는 결혼 생활은 세계의 형태와 비슷한 동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라 남 보기에 부부 쌍방이 다 사회 활동에 열을 올리며 활기 있어 보이며 持續性이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부부가 서로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혹은 좋은 어머니, 아버지 노릇을 골고루 하는 경우인데 사람들은 이들 부부나 자녀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보다는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Skolnick은 이러한 다섯 개의 형태를 오늘날의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보고 미래의 새로운 형태를 구상해 본다. 오늘의 결혼 형태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미래의 가족 형태도 사회 제도의 산물이 될 것이며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수단이 되는 경제 조직과 생산 수단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Mead의 두 가지 결혼 형태를 인용하면서 보다 지속적인 결혼 생활과 책임지는 가족의 구성을 강조하였다. 즉, 두 가지 형태란 개인적 결혼(individual marriage)과 家長的 結婚(paternal marriage)이 그것이다.

개인적 결혼은 흔히 말하는 同居 혹은 시험결혼이 되었고, 이는 젊은이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살아 보지도 않고 일평생을 약속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이해할 때까지 각자가 책임지고 결혼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는 서로를 알기 위한 목적이며 보다 큰 상처를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家長的 結婚은 시험 결혼을 거친 후에 자녀를 갖기 위한 결혼이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일을 쌍방이 합의한 후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二段階 結論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에 옮긴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볼 때 하나의 새로운 결혼 형태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Firestone과 같은 급진적인 여성 운동가는 더욱 새로운 결혼관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미래의 오토메이션 시대는 사람들이 풍요와 여가를 누리게 되어, 여성의 고통스런 출산을 피해 시험관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사회를 구상하기도 한다. 그는 또한 앞으로의 사회는 同居制度가 보편화될 것이며 종래의 결혼 생활에 맞먹는 느낌을 사람들은 갖게 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한편 보다 많은 독신 생활자가 생기고 그들 또한 원할 때는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 자녀 교육을 위해 독신자나 핵가족 보다 더 큰 단위의 가족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적 견해에서 10명 내지 15명 정도의 사람들로 구성된 家系單位의 생활 형태를 구상할 수도 있다. 이런 생활은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약 십년 전 후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상 새로운 몇 가지 형태의 결혼 생활을 단편적으로 살펴 보았으나 그 새로운 형태의 근본적인 개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自由에 대한 갈망이라 하겠다.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혹은 여럿이 살든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개인의 존재, 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유일한 개념은 自由라는 것이다. 이 자유는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자유이고 구체적으로 결혼에 따르는 의무나 책임

에서의 자유라고 하겠다. 결혼 제도가 부과하는 일련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다만 외롭지 않기 위해 함께 산다는 이런 양식은 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집시나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옛부터 이러한 보헤미안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대인은 그와 같은 생활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양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뿐이다.

둘째는 여성 자신의 覺醒을 들 수 있다. 결혼은 물론, 남자와 여자가 한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성의 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과거의 결혼 생활이 남성 위주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여성의 복종이나 의타심, 또는 소극적인 합의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합의를 깨는 한쪽이 있을 경우, 결혼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형태로 바꾸어지게 되는 경우 대개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니시이어티브를 갖게 된다. 즉, 전통적인 결혼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남자는 결혼 형태의 변화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복종을 거부한 쪽이 여성이기 때문에 복종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혹은 협력 관계로 새로운 부부 관계를 설정할 때 필연적으로 새로운 결혼 형태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앞에서 열거한 새로운 형태의 결혼 생활이 이상적인 결혼이 될 것이라든가, 혹은 그와 같은 결혼 형태가 반드시 보편화된다는 확신은 없다. 다만 미래의 가정을 가상할 때 현재의 가정 형태를 통하여 어떤 가정 형태를 상상할 수 있다.

## 2. 現代家庭의 特徵과 機能

첫째, 현대 가정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는 가족 구성의 小規模化를 들 수 있었다. 3代에서 2代로 세대가 준 소위 핵가족 단위의 가정이 보편화되는 경향은 물론이고 자녀의 수가 줄어 형제 자매가 없는 獨子와 같은 부모 혹은 독자와 편모의 최소의 가족 구성원을 이루는 가정도 볼 수 있다.

大家族 制度의 가정 구성원이 부모와 조부모, 형제, 자매, 삼촌, 사촌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었던 혈연 관계에서 자란 어린이와 불과

몇십 년만에 두세 사람으로 축소된 혈연 관계를 아는 어린이의 성장 과정은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도시화 생활의 孤立性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소위 都市型 生活의 가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소규모의 공간을 차지하여 아파트와 같은 건물 안에 서로 밀집해 살고 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과 살고 있으면서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말하자면 좁은 공간에 밀폐된 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단절이 현대 도시 가정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셋째, 主婦不在의 가정을 들 수 있다. 이는 물론 낮 동안 주부가 집을 비우는 경우를 말하며 직장 생활 혹은 사회 활동을 하는 가정 주부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의 추세가 늘어 나면서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생활의 양립이 불가피하게 되어 종래의 가정 주부의 양상과 다른 새로운 형의 주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결합이 불안정하며, 특히 유아나 갓난 아기와 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네째, 大衆媒體 즉, TV나 라디오의 침입을 들 수 있다. 현대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 바쁜 생활에서 여가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적을 뿐 아니라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몇 시간 밖에 없는데다 가족 간의 대화를 방해하는 현대 문명 기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애용하는 TV가 그것이다. 애용한다기 보다 TV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이나 도덕적 훈련보다 TV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지식에 더 예민한 반응을 일으킨다. 몇 안되는 식구들이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TV에 매달려 있는 광경을 중상층 도시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현대 가정의 교육 기능을 들 수 있겠는데 그 대부분이 잘못된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家電製品의 보급과 그 이용으로 현대인의 의·식·주 생활이 편리해지고 간소화되자 특히 주부들의 일손이 줄어 들고, 따라서 한가한 시간이 많아졌다. 이들은 남은 시간과

정력을 여러 종류의 여가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에 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설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부들은 거리낌없이 자녀 교육에 적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학교 교육 내용에 참전하는 것도 모두 주부의 역할로 알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도가 지나쳐 한 때 「치맛바람」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으나, 기실 교육의 참뜻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다는 저돌적인 행동과 혹은 실천형의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 현대 가정의 특징을 다섯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다. 다음은 현대 가정의 기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安息處로서의 가정을 그 첫 기능으로 들 수 있다. 핵가족의 부부는 대가족제의 가정에서 가해지는 어른들의 간섭이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서로를 마음 놓고 위로하고 애정을 표시할 수 있다.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문제를 솔직히 털어 놓고 의사 소통의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수월해진다.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은 현대 소규모 가정의 첫째 가는 기능이라 하겠다.

둘째, 현대 가정은 소수의 자녀에게 충분한 敎育의 機會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상대적인 것이나 대가족제의 가정에서 분산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부모 자식 간의 애정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의 기회나 학력을 기르는 방법을 다른 사람의 눈치 안보고 시도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엘리트(elite)주의 교육을 실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어린이의 「個性敎育」을 계획하는 일 등 핵가족의 장점은 바로 현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라고 하겠다.

어린이의 내면적인 가능성을 발견하여 소질을 개발하고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은 누구보다도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세째, 현대 가정은 여성의 자아 발견의 기회

를 제공하는 人間化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또한 상대적인 고찰일 수 밖에 없으나 가사 노동이 과중한 대가족제의 먹느리나 주부가 누리지 못한 단출하고 편리한 현대 가정의 장점을 들 수 있다.

家父長制의 가정은 사실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행복한 가정(home)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家長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나머지 가족들, 식솔들이 있을 뿐 그리고 엄격한 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차가운 평화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평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역누르는 자와 억눌린 자가 평화 공존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대가족 제도의 가정을 이와 같이 부정적인 면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개인주의적 인간주의의 각도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自我覺醒은 다름 아닌 현대 교육의 결과라 하겠다. 즉, 교육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는 지금까지 모든 국가가 이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가정의 현대적 기능의 하나는 남녀의 동등한 인권 존중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사 노동에만 종사하며 집안에 갇혀 있는 여성들의 해방을 도와주는 일이라 하겠다. 女性解放이란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기본 권리를 획득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부 관계는 종래의 상하 관계나 명령·복종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partnership)의 인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녀 차별을 불식하는 가정 교육의 효과적인 기능을 강구해야 한다. 가정 교육은 인간의 최초의 도장이니만큼 집안에서 아들딸을 평등하게 기르는 일만큼 효과적인 처방은 없을 것이다.

### 3. 現代 家庭敎育의 問題點

이상 세 가지로 요약한 현대 가정의 기능은 실제 교육과 연결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첫째로 가족들의 인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의

기능을 살피 보겠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소가족의 경우 부부 간의 애정 표현이나 의사 소통이 외부의 간섭이나 감시를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애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특히 그들의 교육 문제에 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利點을 생각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보다 부부 중심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애정이 없다든지 식었다든지 하는 불행한 관계가 계속될 때 앞서 지적한 모든 장점들은 더 이상 장점이 될 수 없게 된다.

인간이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며, 선과 악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규정할 때 대인 관계는 항상 상대적이며 우발적인 면을 지니게 마련이다. 이러한 대인 관계는 대가족이나 소가족이나 다를 바 없으나 식구가 많을 경우 대인 관계의 마찰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니면 심각하기 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찰도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존재가 폭신한 쿠션 역할을 하게 되어 심각한 충돌을 면하게 될 수도 있다. 형제 자매가 여럿이 함께 자라온 어린이는 대인 관계의 폭을 넓일 수 있어 자연스럽게 여러 모형의 행동이나 표현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안식처가 되어야 할 따뜻한 보금자리의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여자의 이중적인 부담이 직장과 가정 어느 곳에서도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피로를 풀지 못한 채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긴장감을 전염하게 하는 수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인 관계의 마찰을 일으키게 하고 가정은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이 아닌 공동 합숙소의 구실로 끝나게 된다.

애정이 없는 가정은 이미 가정이 아니다. 어린이의 교육, 특히 조기 교육의 필수적인 여건은 애정이 바탕에 깔린 집안의 분위기이다. 갓난아기는 우유와 사탕을 먹고 자란다고 한다. 외국의 한 보육원 원장의 말을 빌리면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가 저녁 때 아이를 찾으러 와 엄마 품으로 아기를 돌려줄 때와 아침에 엄마의 품에서 보모의 품으로 안길 때의 아기의 표정은 현

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생후 일년도 못 되는 갓난아기의 표정은 누가 나를 낳아 준 엄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쁨과 슬픔을 나타낼 줄 안다는 것이다.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엄마와의 시간이 낮 동안의 시간보다 짧지만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사랑의 농도라고 하겠다.

하물며 감수성이 발달하는 어린이 시기의 정서적인 안정은 가장 중요한 교육적 목표라 하겠다. 특히 애정을 바탕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는 사랑의 결실인 어린이를 대할 때 그 기쁨이 한층 더한 것이나 앞서 지적한 둘째의 결혼 형태인 「시들어진 가정」으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사랑이 끝날 때 모든 것이 (어린이까지도 포함해서) 무너진다면 핵가족의 위험성은 한층 더 크다고 하겠다.

둘째, 핵가족의 바람직한 기능으로 엘리트주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 자녀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 비용의 부담이 적고 적절하게 교육 목표를 세워 개성을 살리는 교육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의 특기 교육이나 과외 공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精銳主義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현대의 젊은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을 또한 그 예로 들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구실에 결국 부모의 욕구 불만의 代償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육관을 아이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된다.

현대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배금주의·출세주의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풍토에서 전반적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아니면 이러한 풍조의 동조하는 어머니들에 의해 그들의 현실적인 욕구 불만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誤導하고 있다.

세째, 현대 가정은 형태상으로는 핵가족이나 기능면에서는 여전히 대가족적이라는 면을 들 수 있다. 즉, 부부 중심 가정의 적절한 기능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담화나 상호 이해, 애정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은 원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극심하고, 가정의 형태가

바뀌어 졌다고는 하나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렇게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사고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男兒選好  
思想 또한 핵가족의 인간 관계를 균형 잡지 못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용감  
하게 출산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설사 가족  
계획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없는 집안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남  
녀의 교육 기회가 동등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여자 아이의 역할과 남자 아이의 역할이 철  
저하게 몸에 밴 후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대  
부분이다.

문제는 가족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른이건  
어린 아이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하나의 인격  
체로서의 인간이 가정에서 성장하느냐 또는 인  
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달  
려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 교육은 모  
든 교육 문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 4. 맺는 말

미래의 가정 교육이 어떠하느냐에 확실한 답  
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다만 현대의 가족  
형태나 가정의 특징,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앞날  
의 일을 추정할 수 있는 것 뿐이다.

교육은 미래를 사는 어린이에 관한 일이다. 이  
말은 교육의 의미를 미래를 위한 준비로 한정하  
자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나 방  
법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하는 可變性을 지니  
고 있으나, 교육의 대상인 인간의 본질은 변하  
지 않는다. 인간의 생활 양식은 장소와 때에 따  
라 변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상은 인류의 영원한 행복  
과 사랑이다.

미래의 산업 구조와 경제 조직이 아무리 변하  
더라도 인간의 최소의 집단 단위가 되는 가정은  
健在할 것이다. 또한 전제해야만 한다. 왜냐하  
면, 사람은 사랑과 행복을 마련할 최소한의 장  
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인간의 기본적

인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sup>2)</sup>위한 최후의 堡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이 있는 한 가정 교육  
은 모든 교육의 기반이 될 것이다.

어린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구체적인  
德目은 인간의 理想과 사회의 要請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가령 성실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 사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 德目の 나열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의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 하는 가정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교육의 결과는 유출될 것이며, 공  
연히 화려한 덕목을 나열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  
오는 것은 아니다. 요즘 어린이의 능력 개발 문  
제를 놓고 제각기 창의력 배양을 강조하고 있지  
만 실제로 창의력이 요구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는 없는 것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문화 일반 분야의 後方을  
담당하는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가정 교육은 본래의 보수성을 지키는 면이 강하  
다고 하겠다. 문학이나 예술, 과학의 진보와 발  
달이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로는 모험적인 실험  
을 감행하는 시행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은 후방에서 어린이를 지키며 삶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 주는  
것이다.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社會化 과정을 의미한  
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어린  
이의 사회 생활을 성공시키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진대 이 일이 그  
아이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일과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효과적인 가정 교육을 위해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어린이의 성장을 위해 지금보다 더 자  
유로운 분위기에서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  
제가 제기되고 연구되어야할 것이다.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교  
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

# 學校教育

辛 世 浩 \*

## 1. 序 言

“현대의 학교, 즉 20세기의 학교들은 19세기의 教育方法으로 21세기의 主役들을 教育시키고 있다.”는 어느 未來學者의 말이 있다. 오늘의 학교가 얼마나 보수적이며 미래의 教育的 요구에 얼마나 둔감한가를 잘 표현하고 있다. 2000년대, 즉 21세기는 더 이상 먼 未來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 대부분 30代 혹은 40代로서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主役들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教育을 맡고 있는 우리들에게 21세기는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우선 未來의 發展과 관련시켜 볼 때 과연 우리의 所望과 意志가 무엇이며 그것의 가장 낙관적인 상태, 또는 비관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다. 소망과 의지가 낙관적인 현실로 유도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未熟, 缺乏, 缺損, 獨善, 橫暴, 非合理 등이 우리의 소망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비관적인 현실로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인가 등에 관하여도 궁금하다. 加速化된 변화 속에서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학교 教育 체제를 정립하는 일은 움직이는 물체를 타고 움직이는 目標物에 총을 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 글은 모든 것이 不確定的이며 流動的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未來社會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教育을 再設計해 보는

일의 몇 가지 측면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2000년대를 향한 학교 教育의 課題」란 말의 의미가 가장 먼저 분명해져야겠다. 이 말의 뜻을 筆者는 나름대로 다음 두 가지로 해석했고 가급적이면 이 둘을 다 다뤄보고자 했다.

첫째는 2000년대의 한국 사회는 어떠한 학교 教育을 요구하는가를 분석해 보고 오늘의 학교를 그렇게 변하도록 하기 위한 과업이 어떤 것인지 찾는 일이며, 둘째는 2000년대의 주역을 키우기 위한 학교 教育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일로 해석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注文에 응하기 위하여 첫째 예측되는 2000년대 韓國社會의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2000年代 주역들에게 기대되는 人間像을 그려 보고, 셋째, 오늘의 학교 教育이 안고 있는 중심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에 따른 학교 教育 改革의 課題를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2000年代의 韓國社會

21세기는 지금부터 18년 후의 시대이다. 비교적 가까운 미래이다. 그러나 不確定的이며 流動的이고 변화의 速度가 加速化되고 있는 이때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주관적 의지에 의한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소

\* 서울대와 동 대학원 졸업.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教育 철학 박사.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교육 과정 개발의 원리』 『학교 教育 체제』 『검사 문항 작성 요령과 실제』 등의 저서와 「1980년대의 한국 教育」 「한국 教育의 전망과 과제」 「문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 관리 체제 모형 개발 연구」 「영재 教育의 이론적 기저」의 논문 다수.

망을 나열할 수도 없고 占術的 豫言을 할 수도 없다. 여기서 試圖하는 미래의 예측은 지금까지 (20세기의 종반)의 추세로 미루어 보아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外插해 보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20세기의 4/4분기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 왔는가를 미루어 21세기의 1/4분기를 예측해 보려는 것이다. 20세기의 4/4분기 동안 정부가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 중 가장 두드러진 것 몇 가지를 추려 보자.

무엇보다 먼저 工業化를 통한 經濟成長 정책의 추구이다. 一次産業에서 二次産業, 勞動集約的 産業에서 技術集約的 産業으로의 전환을 끈질기게 추진해 왔다. 工業立國, 科學技術教育의 진흥, 高級頭腦 人力的 量産, 海外頭腦 人力的 유치, 科學·技術의 생활화 등등의 政策標語들이 말해 주듯 한국은 특히 1960년대 이후 工業化를 통한 經濟成長 정책을 펴 왔으며, 1980년대는 과거 어느 때 보다 科學과 技術의 發展을 통한 先進 工業國家 隊列로의 돌입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정책으로 범국민적 정신 개혁 운동을 들지 않을 수 없다. 産業化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黃金萬能의 가치관 앞에 왜곡되고 퇴색되어 가는 정신적 가치, 도덕적 가치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해체 징후로 간주되는 가치 혼란, 不信風潮, 無秩序, 각종 사회 악의 범람 등을 경교·시정·예방하려는 노력이 끈질기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잘살기 운동을 추구하다가 도덕적인 삶의 기본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종 범국민 운동이 단절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근년에 들어 국민 복지 정책이 활발히 부각되고 있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꾸준하게 국민 복지 정책을 추구해 왔고 식량, 의료, 주택, 취업 기회 등의 擴大와 均等化 政策을 통해서 삶의 질에 있어서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가고 있다. 高度經濟成長의 저변을 담당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문제 등이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福祉政策의 예가 된다.

마지막으로 教育의 두드러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 비뚤어진 教育觀, 팽창 일로에 있는 教育機會의 확대, 50년대의 教育亡國論, 70년대 이래로 등장해 온 教育立國, 大學入試, 注入式 教育, 學校教育의 非人間化 傾向, 課外亡國論, 教育改革 등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 점철되고 있는 4/4분기의 教育現況은 확실히 한국 사회를 특징지워 주는 또 하나의 국면이라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학생이거나 교사이거나 學父母이므로 교육은 경제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고 민감한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이외에도 國防, 統一政策, 開放體制 指向, 國際交易 등 20세기의 4/4분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쯤에서 그치고,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21세기의 1/4분기는 20세기의 4/4분기의 연장으로서의 측면과 20세기 4/4분기의 投入에 의한 產出로서의 측면을 다같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을 구체적으로 세분해 본다면, 21세기의 1/4분기에서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先進 工業社會이다.

20세기의 4/4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는 흔히 “先進開途國”으로 불리어진다. 近代化, 産業化 過程을 밟고 있는 나라(開發途上 國家)중에서 앞서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韓國을 先進 工業社會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가 工業社會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西歐, 소련, 일본 등과 같은 先進 工業社會로 分類할 수는 없을 것이다. 重化學工業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기계와 노우하우(know how)를 아직도 先進 工業國家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요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겨우 組立産業, 合作産業의 굴레를 벗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工業社會이면서도 한국은 21세기에 들어가야 先進 工業社會로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先進 工業社會로의 안착은 脫工業社會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3次産業으로의 구조 변화, 과학자, 엔지니어 등을 포함한 전문직 기술자 종사자의 비율이 급



증할 태세를 보일 것도 전망된다. 經驗的 知識에 대한 理論的 知識體系의 우위와 새로운 知的 技術工業의 태동이 전망된다.

둘째는 民主·福祉社會이다.

先進 工業社會로의 안착과 脫工業社會의 태동기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에 비해 政治·經濟的으로 훨씬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그리고 生産과 配分이 公正하게 보장되는 社會體制가 운영될 것이다. 말썽 없는 선거, 평화로운 政權 교체가 이루어지며,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든 삶의 기본적인 질을 보장받는 사회 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의료, 주택, 식량 정책은 우선 순위를 가질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위한 공정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째는 國際社會이다.

부존 자원이 없는 한국은 이미 연간 생산의 절반 이상을 국제적 교역을 통해서 얻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가면 연간 생산의 70~80%를 국제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한국의 국제적 진출과 함께 외국으로부터 한국 진출의 量的 擴大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 만큼 우리 사회는 開放的이어야 하며, 또 우리는 全世界를 무대로 뛰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또 發達된 교통과 통신 분야의 科學·技術은 先進 工業社會인 한국을 더욱 국제 사회로 접근시킬 것도 쉽게 전망된다.

네째는 學習社會이다.

變化의 加速化 현상은 쓸모없는 지식이나 기술 관념을 해소시키는 學習을 요구하며 동시에 부단히 새로운 학습을 모든 개인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반드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이 모두 학습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일정한 연령층만이 교육을 받던 시대가 지나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 배우지 않고는 주체적인 자아 실현, 자기 갱신을 하면서 생존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學習하는 方法을 學習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學習으로 등장할 것이며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종합적 판단 능력 등은 正直性, 道德性, 國民精神 등

과 함께 과거 어느 때 보다 학교 교육의 중요한 目標로 등장할 것이다.

### 3. 2000年代 主人공들에게 기대되는 人間像

지금까지 2000년대에 예견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先進 工業社會, 民主 福祉社會, 國際社會 및 學習社會로 그려 보았다. 이렇게 전망되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의 책임을 담당할 우리의 未來 世代들의 인간적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필자 나름대로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創意的 인간이다.

창의적 인간이란 한 마디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사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간이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기존의 사고 방식을 벗어난 기발한 着想을 모험적으로 시도하기도 하며, 기존의 것을 대치한 보다 바람직한 代案을 꾸준히 모색하는 진진적이고, 생산적인 探究人인 것이다. 이러한 창의적 인간이 미래 사회에서는 다방면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도 특히 부존 자원이 빈약하여 資源消費型 산업 구조를 기조로 한 국가 발전을 계속할 수 없는 우리 나라 여건에서는 우리의 창의력을 고도화하여 보다 선진된 技術 集約 産業, 知識·情報 産業 社會를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正義로운 인간이다.

정의로운 인간은 인간의 존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이다. 民主 福祉社會의 건설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때문에 보다 民主의 일 수 있는 사회는 정의로울 수 있는 인간들의 육성을 통해서 보다 용이하게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한 民族 共同體의 통합과 유지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 사회의 발전에 핵심적 요인이 될 정의로운 인간의 육성이야말로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될 것이다. 2000년대 사회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같은 貧富 隔差의 문제, 다수와 소수의 權力構造 문제, 도시와 농촌의 不均衡 문제 등 만성적인 갈등과 쟁점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해

소되어져야 할 것이다.

세체는 成就하는 인간이다.

성취하는 인간은 未來指向的, 課業中心的, 肯定的인 자아 개념의 인간이다. 이는 머무를 줄 모르는,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이다. 2000년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知的인 환경 조건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보다 知性的인 문화 풍토, 능력 본위의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적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부단히 배움을 계속해야 된다.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은 꾸준히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일 그 자체에 대한 成就가 존중 받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누구나 자기를 가치롭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보다 인간적이고 허용적인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체는 統合的인 안목을 가진 인간이다.

통합적 안목의 인간은 개인적·사회적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자기가 속한 부분에만 집착하지 않고 전체와 관련지워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다. 사회가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산업 사회 조직 등의 분야에서 각 독립된 분야마다의 細分化가 더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대 사회 발전의 불가피한 현상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教育的인 代案으로 자기 자기 분야에만 몰두하기 쉬운 현대인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 분야끼리 협력할 수 있는 概括的, 全體的인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2000년대 미래 사회에서 우리 인류가 당면할 문제에는 미시적·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종합적·전체적·지구적인 것이 중요하게 대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 한 사회, 한 국가, 더 나아가 이 지구가 살아 남기 위해서 문제를 共同으로 생각하는 지혜를 같이 나누며, 삶의 기

쁨과 고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統合的인 안목을 가진 인간을 2000년대 미래 사회는 분명히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 4. 2000년대를 향한 學校教育의 課題

앞에서 필자는 21세기 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主役들에게 기대되는 人間像은 무엇인가를 상정해 보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人間像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학교의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現行 學校教育體制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보는 일은 2000년대를 향한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1) 體制變化 및 그 效果의 충분 요건

苗木을 심어 재목을 얻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는 일에는 누구나 성급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녀가 成人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한 기대를 하는 부모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教育을 百年之大計라는 말로 표현하면서도 教育體制의 變化와 그 효과에 관한 기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다.

한 研究에 의하면 DDT가 살충제로 쓰여지고 그것이 토질 오염, 수질 오염을 통해 그 영향이 동·식물을 거쳐 인체에 해독을 끼치는데 대한 공해 방지를 위해 DDT의 사용 금지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 효과는 11년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사회 집단의 연령 구조가 일단 변형되면 다시 그 패턴으로 복귀하기 까지 70년이 걸리며 한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지금부터 노력해도 10년 내지 15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000년대의 主役을 키우기 위한 教育體制의 재정비 작업이 지금부터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16년을 기다려야 한다. 체제 정비 작업을 신중히 하기 위해 5년 내지 10년을 소비하는 사례는 그렇게 드문 것이 아니다.

##### 2) 現行 學校教育體制의 적절성 여부

오늘의 學校教育體制로는 人間教育이 不實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된 지 오래된 일이다. 비록

中學入試, 高校入試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大學入試의 병목 현상이 남아 있는 한 入試準備를 위한 注入式 教育의 폐단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개탄해 온 지도 오래다. 경쟁에 쫓기며 자라다 보니 학생들은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배타적이며 비뚤어진 성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현행 학교 체제에서 工夫 壓力, 또는 강요된 공부를 참고 견디어 내는 생활을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직업 세계를 의식한 일류 대학에서의 경쟁을 요구하는 성인들의 직업적·경쟁적 教育觀과도 깊은 관계를 갖는다. 點數, 入學과 卒業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外在的 動機에 의해 공부를 하는 학생이 대부분인 것 같다. 무엇인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쁨, 人間現象·社會現象·自然現象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탐구하고, 발견하고, 창조해 보는 경험 과정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어서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공부에 임하는 이른바 內在的 動機에 의한 학생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內在的 동기가 유발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너무 많다. 多數 學級事態, 一方的 知識傳達(講義) 方法에 의해 교육 받은 대부분 교사의 교육 방법은 여전히 강의 일변도이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대개의 경우 集團의이다.

과밀 학습, 대집단을 관리하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교원들은 이미 피곤할 수 있다. 주어진 量과 정해진 進度를 소화시키고 달리자면 교사는 짜증스럽고 그의 일은 매우 노동 집약적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들이 자기에게 보다 의미가 깊은 것, 자기의 학습 속도에 맞춰 적절한 매체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른바 個別化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은 집단적 학습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지루한 시간을 참고 견디는 생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大量生産體制로서의 학교 교육의 非生産性의 단면을 보는 것이다.

生産過程의 여러 곳에서 不良品의 징후를 주의 깊게 탐색하여 미리 교정하며, 생산품 하나

하나의 質에 깊은 관심을 갖는 質管理體制가 오늘의 學校教育體制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우리가 바라는 創意人, 正義人, 成就人, 그리고 統合의 人間은 보다 의미 있는 학습 과정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얻는 학습 경험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무의미하게 지루한 시간을 낭비하며 피동적으로 학습 경험의 정수를 느끼지 못하고 끌려가는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人間이 길러지지 않는다.

### 3) 學校教育體制 改善方向

앞에서 상정해 본 2000년대의 主人公들을 보다 성공적으로 키워 나갈 방안은 무엇인가? 현행 學校體制의 어떤 면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그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未來社會의 主役들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일은 물론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學制運營, 教育課程 運營, 그리고 授業體制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몇 가지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大學入學制度의 개선이다.

課外工夫 금지, 大入本考查 폐지, 卒業定員制의 채택, 그리고 大入豫備考查의 大入學力考查로의 개칭 등으로 특징 지워진 7·30 교육 개혁 조치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注入式 教育의 경쟁과 과외 공부의 필요가 달리 해소되는 방안이 없이는 教育正常化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筆者는 여기서 大入學力考查를 폐지하고 현행의 內伸制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적용하는 길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믿는다. 대학은 또한 志願學生에 대한 다양한 評價基準을 연구 설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고교로 하여금 內伸토록 요청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컨대 학생의 적성, 취미, 소질, 학교 활동, 학교 외 활동, 성적, 성격 등에 관한 초·중등 학교 기간의 관찰 결과를 수집·평정하고 면접을 통해 그것을 보충해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制度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不信스러운 敎員의 事例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제도 운영에 대한 학습은 빠를수록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師道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엄격한 기준이 사전에 연구 개발되어야 하며, 잡

음이 있을 때마다 사례를 철저히 감사하는 행정적 노력도 아울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過密學級, 過大規模 學校를 시급히 완화시켜 교수·학습 체제의 기본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大量生産體制에 짓눌린 個性, 自我意識의 회복은 人間教育, 生活教育을 위한 學校風土 변화의 첫째 조건이다. 集團 속에서 一部 適應學生 중심의 學習進도와 교육 방법에 적응 못하는 보다 많은 학생들의 學校生活은 지루하고 비생산적이다. 後論할 教育課程 및 授業의 個別化도 學級과 學校의 크기를 현상태로 놔두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學校가 人間教育, 生活教育, 勞作教育, 進路教育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教育課程 운영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入試壓力, 過密·過大의 불편으로부터 학교가 해방된다 하더라도 教育課程 및 授業體제의 운영이 지금처럼 單線的이고 경직된 풍토 속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人間像이 함양되기 어려울 것이다. 學校長의 教育哲學에 따라 人間教育, 生活教育, 現場教育, 實驗實習教育, 進路教育, 創意性教育 등이 활발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세심한 체제적 배려와 행정적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풍부한 학습 자료, 매체 등 많은 학습 보조 자료나 器機가 준비된 학습 자원 센터, 특활 교실, 자료실 등의 마련은 자율 학습, 개별 학습을 가능케 하는 요체가 된다.

넷째, 敎員教育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學校教育에서 가장 중요한 變數는 敎員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20만 敎員, 다시

말하면 20세기에 일하는 敎員의 75%가 21세기에 敎員이 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未來 指向的인 再教育이 따르지 않고는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한낱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에도 敎員들은 19세기 方法으로 21세기의 主役들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敎員에 대한 再教育이 더욱 결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더불어 敎員이 일하고 있는 學校體制, 授業體制, 學校經營體制 등을 대폭 未來 指向的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研究와 政策의 變化를 서둘러야 하겠다.

## 5. 結 言

이상에서 筆者는 2000년대를 향한 韓國의 學校教育이 해결 해야 할 몇 가지 主要課題를 지적해 보았다. 教育體제의 變化, 教育課程의 變化, 그리고 敎員教育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과감히 추구하는 일을 들어 보았다. 世界的으로 알려진 韓國人の 높은 교육열, 高等教育을 받아야만 社會·經濟的으로 安定된 生活을 할 수 있다고 믿는 (自身들의 경험에 비추어) 學父母들의 外在的 教育觀, 그리고 널리 만연된 平等思想 등이 상승 작용해서 上級學校의 문을 점점 좁혔고, 이러한 量的 팽창 과정에서 教育의 質은 크게 개선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른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教育投資能力的 마함과 人間發達과 社會發展의 촉진을 위해 가장 소망스러운 教育體제의 성격과 教育課程의 本質, 그리고 敎員教育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관한 반성과 합의가 미흡했던 것 등은 오늘의 教育體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취약점이다. 이러한 취약점에 대한 보강은 2000년대 教育의 活力素가 될 것이며, 이러한 課題는 지금부터 착수·개선해야 할 일이다. ☐

# 社會教育

李 相 周 \*

## 1. 머리말

社會教育은 대단히 다양한 形態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社會教育의 문제를 다루는 논문은 흔히 그 概念과 範圍를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社會教育의 概念定義나 그 性格規定을 위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 논문의 한계를 규정 짓기 위한 최소한의 개념 정의만을 간략히 해 두고자 한다.

첫째, 社會教育을 학교와 가정(또는 교사와 부모) 이외의 社會化 機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보고자 한다.

둘째, 社會教育은 형식적 학교 교육 제도의 定規 教育對象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형식적 교육기관인 학교나 대학이 定規學生이 아닌 成人이나 不就學 靑少年들에게 실시하는 교육과 定規教育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社會團體나 機關을 통해서 받는 교육은 社會教育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교육은 대단히 遍在的인 社會現象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定義를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社會教育의 범위는 대단히 廣範하고 그 樣態는 대단히 복잡하다. 신문과 TV 같은 대중 매체로부터 시작하여 圖書館, 博物館, 公演場 등과 같은 文化施設과 靑少年團體, 農村指導所, 公務員教育院, 軍事學校, 企業體의 社員研修院 등이 실시하는

보다 조직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각종 社會 운동에 이르기까지 社會教育의 형태는 다양 각색이다.

이 논문은 이처럼 다양하게 전개되는 社會教育이 21세기의 韓國社會를 展望할 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社會教育이 갖고 있는 教育的 潛在力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未來社會에 있어서 社會教育의 位置

현재 인류 사회는 文明史의 大轉換期에 처해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時代를 宇宙時代나 電子工學時代나 情報時代라고 말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사회를 脫產業社會나 超產業社會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Toffler는 그러한 새로운 文明史의 단계를 「제 3의 물결」이라고 부르고, 인류 사회는 農耕時代를 가리키는 ‘제 1의 물결’과 產業時代를 말하는 ‘제 2의 물결’을 넘어서 「제 3의 거대한 洪水」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脫產業社會의 문턱에 들어선 韓國社會와 같은 開發途上國은 아직도 農耕社會의 傳統的 文化 要素를 상당히 지니고 있는 脫產業社會의 生産方式, 社會制度, 價值規範 등이 새로이 흡수·정착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이제 또 다시 脫產業社會의 징후들이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서울대와 동 대학원 졸업.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 철학 박사. 현재 강원대 총장. 『교육의 사회적 기초』 『교육 혁신 보충에 관한 이론적 기초』 등 저서와 논문 다수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3時代에 걸친 사회의 특징이 동시에 混在하는 대단히 복잡한 社會狀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社會變動에 따라 教育制度도 변천한다. 특히, 文明史的 段階에 따라 주된 「教育場」의 위치가 옮겨져 왔음을 지적하고 싶다. 農耕社會에서의 주된 「教育場」은 가정이었다. 농경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傳統的 慣習과 規範을 습득했으며 부모로부터 가사나 농사를 자연적인 일상 생활을 통해서 배웠다. 가정의 社會化 過程으로서도 일반 농민으로서 성장하기에 족하였다. 사회가 產業時代로 移行함에 따라 가정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게 되었으며 학교 교육과 같은 形式教育이 필요하게 되었다. 產業社會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橋樑機關(bridging institution)으로서 학교라는 形式的 社會化 機關의 좀더 計劃的이고 體系的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 주된 「教育場」이 학교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가정에서의 基礎的 社會化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調和롭게 연결되어야 전전한 性格形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農耕社會에서 產業社會로 이행됨으로써 「教育場」이 가정에서 학교와 가정으로 옮겨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脫產業社會에서는 주된 「教育場」이 학교에서 다시 사회로 옮겨지고 그 社會教育이 가정과 학교의 社會化 過程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추세를 圖式으로 表示한다면 [家庭→學校·家庭→社會·學校·家庭]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2000 년대를 指向하는 한국의 사회 교육이 당면한 課題를 살피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넓은 時代的 脈絡에서 교육에 대한 社會的 狀況과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가정이 주된 교육의 장소가 되었던 사회는 대체로 朝鮮朝末인 開化期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처럼 엄밀하게 시대 구분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단계로 학교가 주된 교육장이 된 시기는 개화기 近代 學校制度가 수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大衆化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대되어 왔으며 사회 교육의 발전을 위한 變化와 革新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第3의 단계에 이행되는 하나의 전조로서 나타난 최근 사회 교육의 발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 社會教育의 發展動向

첫째, 매스컴의 量的 成長과 그 役割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신문, 잡지 등 印刷媒體의 발행 부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종류도 다양화되어 여러 독자층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라디오, TV와 같은 電波媒體의 획기적인 보급과 視聽率의 급증은 국민의 정신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新聞社와 放送局에서 직접 成人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은 언론 기관의 새로운 教育的 役割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 교육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둘째의 모습으로, 수많은 民間自願團體의 生成과 그러한 단체의 교육 활동과 사회 운동을 지적할 수 있다. 傳統社會에 있어서 契나 두레 또는 鄉約 같은 것도 民間團體라고 할 수 있지만 現代的 意味의 民間團體는 開化期 때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本格的 民間團體運動은 해방 후에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러 형태의 靑少年團體, 女性團體, 奉仕團體, 會員團體, 趣味團體, 宗教團體, 職業團體, 地域社會開發團體 등이 수없이 생겨났다. 이러한 民間團體는 각각의 對象集團을 위해서 각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文盲退治, 公衆衛生, 家族計劃, 農事改良, 自然保護, 貯蓄, 造林, 生活改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회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셋째, 企業體와 각종 公共機關의 現職教育이 크게 강화되고 體系化된 것도 우리 나라 사회 교육의 향상된 중요한 한 側面으로 지적할 수 있다. 企業體가 직업 훈련, 신입 사원 교육, 관리

자 교육, 경영자 세미나 등 여러 형태를 빌어 繼續教育(continuing education or further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그것은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經營改善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 우리 나라 企業體의 참여와 협조로 勤勞靑少年들을 위한 夜間特設學級과 기업체 附設學校가 開設·運營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進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政府의 각 部處가 각 직급의 공무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再教育도 이제는 상당히 體系化된 것으로 보인다. 軍隊와 教育分野에서도 현직 교육 제도가 상당히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네째, 私設講習所와 職業訓練所의 수와 종류가 크게 증가한 것도 중요한 발전의 하나이다. 入試準備教育을 위한 소위 文理系 강습소는 결코 생산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각계 각층의 여러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기 교육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강습소는 그 나름대로 社會教育的 機能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形式的 학교 교육이 충족시켜 주지 못한 여러 가지 특수한 요구, 즉 職業技能의 습득, 藝術的 慾求의 만족,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 가정 관리 기능의 습득 등과 같은 實生活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적 요구를 사설 강습소가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社會의 産業化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각종 技能人力의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職業技術을 전수하는 公共職業訓練所가 많이 설립된 것도 우리 나라 社會 교육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학교나 대학이 그 教育的 機能을 擴張하여 정규 학생이 아닌 成人이나 不就學靑少年들을 위한 教育活動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放送通信教育의 實施이다. 1972년에 설립된 放送通信大學과 1974년에 시작된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형식 교육의 기회를 놓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앞으로 더욱 보편화되면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점점 더 그 存立理由를 잃어갈 것이 예상되지만 放送通信大學의 필요성

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교육의 效率性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 강력히 요구될 것이다. 그 외에도 학교는 새마을 교육이나 지역 社會 교육을 통해서 지역 社會 주민에게 단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經營者나 行政家를 위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조직된 단기 과정을 실시하거나, 최근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平生教育 과정을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보수적인 한국의 대학이 점차 그 大衆的 機能을 수탁하고 확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第5共和國 憲法 第29條 6項에 平生教育의 항목이 포함된 것은 社會 교육을 法的으로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국민 교육에 대한 未來 指向的 含意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에 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하게 들리는 平生教育의 條項을 규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지만 社會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 등 社會의 모든 교육적 기능을 유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라는데 그 의미가 대단히 깊은 것이다.

#### 4. 社會教育에 대한 새로운 要求

다음은 21세기의 한국을 전망하면서 社會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 社會가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하려면 先進社會의 科學技術을 하루 속히 수용하고 高度工學(high technology)을 자체적으로 研究·開發하여 생산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自然資源이 빈약한 한국으로서 高度成長을 위해서는 그 길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社會 교육을 위한 중요한 課題가 제기된다. 우리는 20~30년 간 초기 산업 社會가 요구하는 단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특수 공업 고등학교와 職業訓練所 등을 설치하여 기계적인 技能訓練을 실시하였고, 그러한 훈련을 받은 수많은 技能人力이 공장에 취업하여 60~70년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 20~30년 동안에 일어날 공학적 혁신과 그에 따른 생산 기술의 변화를 예상할

때 初期 産業社會의 勞動力은 전면적인 再教育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生産過程은 점차 自動化될 것이며 극히 특수화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들은 좀더 포괄적인 업무를 맡게 될 것이 예상된다. 職業構造도 육체와 손으로 일하는 노동력의 비중은 줄어들고 思考力과 頭腦로 일하는 노동력의 비중이 점차 늘어 갈 것으로 보인다. 電子通信과 컴퓨터의 발전과 그 이용으로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장소에서만 작업을 해야 했던 여러 制約들이 극복됨으로써 작업의 상황과 조직이 크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高度工學을 이용하는 21세기의 경제 체제가 요구하는 勞動力의 資質(技能과 能力과 作業倫理觀 등을 포함하여)은 지금의 경제 체제가 요구하는 것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말하면 初期 産業社會의 經濟構造에 맞추어 훈련된 오늘날의 勞動力을 後期 産業社會의 經濟構造에 알맞게 再教育, 再適應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사회 교육이 깊어져야 할 무거운 과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遺傳工學이나 電子工學이나 資源工學 분야의 연구에서 암시해 주는 社會文化的 變動은 참으로 심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새로운 공학적 발전은 앞으로 社會制度和 人間行動 면에서 더욱 適應을 요구할 것이며 적응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많은 社會問題가 야기될 것이다. 價値觀의 混亂, 共同體의 해체, 人間疎外化, 都市環境의 악화, 社會集團 간의 갈등 등 많은 社會問題가 예상되는 바, 그것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社會構成員들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합리적 문제 의식과 태도, 그리고 새로운 生活樣式을 갖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그러한 社會問題에 대처해야 할 것이지만 학교 교육 보다 덜 形式化되어 있고 덜 固着化되어 있는 사회 교육은 수시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社會變動의 속도가 더욱 加速化될 것이라는 일반적 事實만으로도 사회 교육에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본다. 현대 사회의 변동 양상을 폭발이라는 말로 특징짓는 사람이 많다. 知識과 人口의 期待의 폭발, 都市의 폭발(implo-

sion), 技術의 폭발(technoplosion), 갈등의 폭발(displasion)등 이미 여기 저기서 連鎖暴發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20~30년간 더욱 많은 변화의 폭발이 더욱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변화의 시대에서는 인간은 일생 동안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자기 자신의 廢化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변천하는 狀況에 적응하면서 生産의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교육을 통하여 계속 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適應性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교육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생 동안 개인의 地位와 役割과 業務 등이 미래 사회에는 더욱 자주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래에는 직장에서 근로자가 행해야 할 생산 방식이나 소속해야 할 작업 집단이 더욱 수시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통한 재학습과 재적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의로운 福祉社會의 具現을 목표로 삼고 있다. 教育機會均等の 보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회 균등의 기본 요건이며, 따라서 그것은 社會正義의 具現과 福祉社會의 建設에 礎石이 되는 것이다. 사회 교육은 형식적 學校制度에 의한 교육 기회 不均等を 補完시킬 수 있는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다. 「學習社會」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다른 골목이 없고 교육 기회를 한번 놓친 경우에도 제 2, 제 3의 機會를 가질 수 있는 教育體制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교육과 학교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平生教育體制를 수립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한국 사회에는 사회 교육을 위한 制度的, 工學의 手段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며, 사회 교육과 학교 교육의 구분마저 더욱 흐려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우선 電子工學의 발전으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는 作業場과 教育場을 더욱 근접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나야 했던 指導와 學習이 다른 장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이 학교의 울타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 교육의 상대적 비중은 떨어지고



사회 교육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오늘날 학교가 함유하고 있는 教育的 「特許權」은 앞으로 인젠가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형식 교육이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 예로서 制度的 硬直性, 集團主義的 劃一性, 無의미한 知識爲主 教育 등을 극복할 수 있는 教育적 代案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定規學校와 非定規學校, 形式教育과 非形式教育을 갈라놓는 두터운 벽은 점점 허물어질 것이다.

### 5. 社會教育의 發展課題

이제 사회 교육 발전의 방향과 課題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사회 교육 발전의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197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教育制度 發展의 方向 探索” 세미나에서 본인이 발표한 내용 중 한 부분을 인용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사회 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設定한다.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平生教育體制의 樹立을 궁극적인 목표도 한다. 그러한 平生教育體制는 人生의 모든 年齡이나 段階에서 가질 수 있는 教育的 經驗을 縱的으로 연결시켜 教育的 繼續性을 살려야 하며, 한 年齡에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教育的 經驗을 橫的으로 統合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平生教育體制는 각 社會集團이 가진 教育的 要求를 폭넓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多樣性을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받는 시기와 기간,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轉學 및 轉科 등에 있어서 融通性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이러한 平生教育體制의 理想型은 당장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궁극적 목표 또는 이상적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 목표로 삼는 平生教育體制가 교육의 繼續性, 統合性, 多樣性, 融通性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教育體制의 중요한 한 부분인 사회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우선 社會教育體制의 要素부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大衆教育의 무거운 짐에 압도되고 官僚主義의 굴레에 매여 집단주의적 교육으로 획일화되고 인간 교육의 힘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여 생동감 넘치는 국민

교육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교육을 발전시켜 학교 교육과 접합시켜야 한다.

첫째, 각종 사회 교육의 활동을 국가적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는 協議體가 있어야 한다. 사회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우선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 교육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中間水準의 協議體가 필요할 것이다. 예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靑少年團體協議會나 女性團體協議會와 같은 「團體의 團體(organization of organizations)」가 다른 영역에서도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協議體는 해당 사회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교육 내용의 開發이나 財源의 確保나 指導者의 養成과 같은 일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公共機關과 民間團體의 사회 교육 활동을 국가적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 사회 교육 협의회나 韓國平生教育機構와 같은 협의체가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 公私 社會教育機關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社會教育分野의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학교 교육의 전문가와 교사를 양성하고 연구하는 것은 제도화되어 있으나 사회 교육을 위한 제도는 아직 未發達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사회 교육 從事者들의 재교육을 위한 現職教育制度도 물론 발달되지 못했다. 예로서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 기업체의 社內教育 擔當者 등과 같은 교육 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의 教育研究와 그곳에서 진수하는 教育理論이 주로 학교 교육과 학생에 관한 것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사회 교육에 대한 학술 연구와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社會教育機關은 현대의 教育工學的 革新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전자 공학적 혁신을 이용한 새로운 사회 교육의 형태를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TV를 이용한 방송 통신 교육이라든지 라디오를 통한 농민 학습

반 운영이라든지 대학의 강의실과 연결된 閉鎖回路 TV를 통하여 실시되는 회사의 사원 교육 등은 이미 하나의 平凡한 사실이 되었지만, 그것은 모두 현대 공학을 이용한 사회 교육의 예인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전자 통신 분야의 발전을 예상할 때, 그러한 형태의 사회 교육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사회 교육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네째, 社會教育體制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국민에게 均등한 教育機會를 保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 교육을 위한 團體와 活動과 施設이 도시에 지나치게 偏在되어 있으며, 소수의 거대한 紀念碑的 文化施設은 더러 있지만 近隣의 소규모 文化施設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근로 청소년이나 하부 계층을 위한 사회 단체의 교육 활동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학교를 통한 교육 기회의 不均等を 사회 교육으로 어느 정도 補完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러 형태의 사회 교육은 국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실시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회 교육 기관이 그 존속을 위해서 營利를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대상 집단의 저급한 취향과 기호에만 영합

하기 때문에 종종 國民啓導를 위한 責任을 저버리거나 국가의 공동 목표와 요구를 망각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공공 기관에 의한 통제보다는 민간 단체에 의한 自律的인 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회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획일화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진전한 社會氣風과 國民精神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 교육을 위한 학교와 대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학교와 대학은 그 教育的 資源을 최대로 활용하여 사회 교육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大衆的 機能을 수락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학교와 대학은 사회 교육을 담당하는 구조를 구비하여야 하며 학교 조직을 전반적으로 유연성있게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대학은 정규 학생들이 校外的 社會教育機關에 의해서 갖는 교육적 경험을 학교 교육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平生教育體制의 수립을 위하여 학교 조직은 사회 교육과 긴밀히 통합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적 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KEDI의 國際的 役割

Robert M. Morgan \*

## 교육 혁신과 KEDI

본인은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본인에게 주어진 주제는 「외국인이 본 국제 사회에서의 KEDI의 역할」이지만 30년 이상 한국과 관련을 맺어 왔기 때문에 외국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局外者의 관점에서 KEDI를 보려고 노력했으며 탈라하시에서 며칠 전에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깊은 향수에 젖어 보기도 했었다. 이제 국제 수준의 연구 기관으로 성장한 KEDI를 보면 창립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 나온다.

나는 오늘 KEDI가 창립 1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축하하는 바이다.

창립은 1972년이지만 1970년부터 창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 1960년대 후반에 구성되었던 장기 교육 계획 위원회의 정 범모, 이 영덕, 박 현기 박사, 그리고 현 원장 홍 응선 박사 등이 실제적인 창립자들일 것이다. 동 위원회가 제시한 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들 중에는 연구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국립 연구 기관의 설립에 관한 것과 1970년에 위스콘신 대학의 C.G. Scriven 교수가 한국의 문교부에 낸 보고서에서 한국 교육 공학 기구(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Technology) 설립을 제안한 것 등이다.

이 두 개의 선도적 제안에 힘입어 플로리다 주립 대학의 연구팀은 1971년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교육 개발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의 초점은 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E/M Project)의 실험적 개발이었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같은 개발 노력은, 이제까지의 어떤 것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이었다. 새로운 기구는 당시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다 크고 복합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졌다. 새 기구의 명칭은 한국교육개발원(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으로 제안되었고, 설립 전인 1971년에 벌써 하나의 임무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KEDI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강력한 행정적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인사권이나 연구의 독립성 및 자율성에 관한 한 KIST와 유사한 성격을 갖추어야 하며 KEDI 원장이 문교부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문교부 산하기관이어야 하고 행정적으로는 문교부의 다른 하위 기관들과는 달리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1971년 중반에 가서 초·중등학교 교육 개혁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KEDI 설립이 절대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처음에 이 영덕, 김 호권, 신 세호, 이상주 박사들로 구성된 작은 과제팀이 만들어졌는

\*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교수 Ph.D.

데 그것이 KEDI의 첫 출발이었고, 그들은 기구 개발 사업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본인은 대단히 조심스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발의 문제가 규모와 시각적인 면에서 매우 과소 추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보건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업이었다. 한국이 아니었더라면 그 어떤 나라에서도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평가하는 교육 계획가도 있다.

### 국제적 역할 증대와 문호 개방의 필요성

현재와 같이 KEDI가 성장함에 따라 중점 사업으로 수행된 E/M프로젝트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와는 다르고 KEDI 역시 평범한 교육 연구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 교육 연구자들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창립 초기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지는 하지만 E/M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새로운 개발 연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교 방송 통신 교육, 인구 교육과 많은 정책 과제들이 다른 나라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킨 개발 연구 활동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KEDI와 그 연구진이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사실도 세계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분명해졌으며, KEDI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제적 인사들의 방문 역시 늘어갔고, 연구진이 파리, 방콕, 워싱턴, 그 밖의 주요 지역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받는 빈도도 늘어 갔다.

KEDI의 영문 보고서 및 출판물들이 다른 나라에 보급되어 읽히고 토론되었으며, 몇몇 프로젝트와 기구 자체는 다른 나라들의 모델로까지 채택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국립 교육 통신 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교사 훈련을 위한 프로젝트의 개발을 요청했다. 이와 같이 KEDI가 세계 교육계에서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 KEDI의 성공 및 국제적 중요성을 확 인식시킨데 따른 것이다.

오늘의 한국은 번영 된국가로서 후진국에도

움을 주어야 할 입장이 되었으며, 특히 교육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국제적인 지위는 물론 국내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발 맞추어 KEDI에서는 문호 개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정부 당국에 의해 KEDI가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확대되는 국제적 활동에는 운영비가 크게 소요되므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국 교육이 받게 될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에 의해 계획되어야만 할 것이다. KEDI는 국제적 역할을 신중하게 담당해 왔으며 크게 공헌해 왔다고 믿고 있다.

KEDI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국제적 활동(국제 회의의 참석 및 외국 방문자를 위한 문호 개방, 국제적인 연구 보고서의 출판)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또한 KEDI의 출판물을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KEDI의 출판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외국의 교육 관계자들에게는 큰 관심거리의 하나가 되었다. 초창기에는 영어로 작성된 것도 꽤 많았으나 대부분의 경우 제목만 영어로 되어 있고 보고서 자체는 한글이다. KEDI의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된 보고서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KEDI 연구자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학술 잡지에 또는 유네스코 출판물 등에 논문이 발표되도록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KEDI의 발전상 세계에 심어갈 때

각종 보고서의 번역은 충실해야 할 것이다. 영어·불어·독일어·일본어 등에 능통한 번역진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이 학술 잡지 편집자 또는 논평자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며 연구 설계 및 방법론, 통계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 세계 수준을 능가하면서 KEDI 연구의 열성과 질과 가치를 높여 줄 것이다.

KEDI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 활약의 또 다른 영역은 다른 나라들의 교육자 또는 연구원들

을 초청하는 것이다. KEDI를 방문했던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방문자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체류 기간이 며칠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가 있는 플로리다 주립 대학의 LSI(Learning Systems Institute)에는 여러 나라의 방문객들이 줄을 있는데 KEDI도 방문 학자들이 다소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LSI의 경우는 짧게는 3개월, 때로는 1년 동안 체류하기도 한다.

KEDI는 연구 활동을 하기에는 매력적인 기관이며 외국의 방문 학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더욱 많은 국제 회의 개최와 워크숍이나 각종 훈련 세미나를 통하여 KEDI의 전문적이고 독특한 영역을 여러 나라 학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유일한 국가적 교육 연구 기관으로서의 KEDI는 연구물의 배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가야 할 것이다.

### KEDI의 발전을 위한 모색

끝으로 KEDI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세계 여러 교육 연구 기관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관과의 유대 강화는 KEDI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서신 왕래나 상호 방문 등으로, 또는 협정을 체결하여 공식화하는 길도 있을 것이며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출판(publication)되기 전에 우편에 의해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국제적 유대 관계가 갖는 최대의 장점이며, 연구원들의 상호 교류 역시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KEDI가 세계 속에서 빛나기 위해서는

발전적 연구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를 한꺼번에 다 진행시킬 수는 없지만 연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준거로서 연구 결과들이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 가능한 일반성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KEDI가 수행한 E/M 프로젝트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학업 성취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것 중의 하나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예컨대 교실 안에서 ITV, 라디오, 그리고 TV와 시청자 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학업 성취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교사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세계 여러 나라 교육에 큰 의미를 줄 것이다.

이 강연을 끝맺으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여기에서 맺었던 인간 관계는 개인 생활이나 직업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한국인들의 활력이나 능력을 파소 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971년에는 어느 누구도 KEDI가 오늘날처럼 발전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본인이 KEDI의 E/M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직업적으로 보아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며 이런 뜻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개인 생활면에서는 한국 국민과 문화에 대하여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오늘 제시한 국제 사회에 있어서 KEDI의 역할과 국제적 도약을 위한 수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자 한다. ○

〈번역 : 허 운나(국제협력담당)〉

# KEDI의 發展方向

Paul H. Masoner \*

지난 10년 동안 KEDI는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외국인으로서 KEDI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일 것 같아 장래에 影響을 끼칠 만한 몇가지 문제만 提示하겠다.

1) 교육이란, 어디에서든지 정치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교육은 어느 시기의 支配的인 사회, 경제, 정치적인 조건에 관련된 결과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그의 個別的인 결과의 엄밀한 성격에 따라 판단되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이 어떠한가 하는가의 假定은 다양한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치적인 것이 되어 가며, 내용이나 방법의 변화를 보급하는 것 조차도 그것이 비록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해도 정치적인 과정이 되어 간다.

2) 교육 체제는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교육이 가진 훌륭한 역사와 실제 담당자들이 굳게 가진 내용과 방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교육 체제가 가진 急激한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불평하기도 하나 이러한 저항감이 체제적 지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

3) 교육적 실험의 계획, 평가 모형, 그리고 행정이나 조직의 모형은 西歐社會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이 서로 다른 장소나 체제에 어느 정도쯤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정치적 사업으로서의 교육, 급격한 변화의 수용이나 실천에 대한 저항감 및 외국의 모형이나 가정의 영향과 같은 여러 세력들에 대해 KEDI는 先驅的인 위치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상적인 과제의 급박성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치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고 교육이 직면한 딜레마는 정치, 경제적 相互依存性의 실재를 인식시키려는 요구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성격을 지닌, 독특한 가치를 보존하려는 요구를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즉, 교육 체제는 어떻게 한국의 풍부한 역사 지식을 전수시키며, 산업화된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와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의 합리적 成員意識에 필요한 이해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EM事業에 요구되는 基礎資料를 開發함으로써 이미 이루어 졌다고 본다. EM事業이 中等學校로 發展되게 됨에 따라, 人力 요구의 가정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지 모른다. 특별한 직업을 위한 교육은 시민 정신 교육과 함께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연구와 정책의 분석에서 KEDI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이나 훈련에 관련된 농촌의 생활과 家族構造의 변화에 대한 縱斷的인 調査

② 교양 교육을 받은 학생과 특수 인력 양성 교육을 받은 학생 간의 職業記錄 比較

③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 철학의 분석 등이다.

KEDI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교육 5개년 계획과 같은 문제에 KEDI는 미래의 교육

\*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사범대학 명예학장, 피츠버그 대학교 중신교수 Ph.D.

에 대한 다양한 代案을 가지고 교육, 사회, 경제적 효과를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하며, 문교부는 경제 계획 작성 부서와 협력하여 장기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KEDI는 한국의 교육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연구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M事業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KEDI의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려진 革新的인 연구·개발 사업은 앞으로도 核心事業으로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와 개발에만 한정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를 실행하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KEDI가 EM事業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등학교에서의 EM事業에 맞는 교육 제도의 연구·개발 및 시범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의 경험에 직업 교육과 인력의 요구에 대한, 政策研究의 경험을 더하면 중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② 초·중학교 교육 발전에 참여를 계속해야 한다. EM事業의 교육 과정이 이전보다 改正된 것이긴 하지만 계획이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정되거나 再組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평가해야 한다. (1) 서로 結合될 수 있는 主題領域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과정은 무엇인가, (2) 각 교육 과정 영역에서 빼내거나 上位 혹은 下位水準으로 變更시켜야 할 主題는 무엇인가, (3) 언어의 발달이나 기타 영역의 이해를 促進시키기 위해 교육 과정의 모든 영역을 통해 쓰이고 있는 언어에 대한 一貫性의 문제, (4) 문제 해결이나 탐구의 高度水準의 思考過程에 주어지는 強調은 어디에서인가의 문제

③ 교육 과정 개선의 연구와 개발의 노력에 더해, KEDI는 授業의 傳達體制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자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자료의 質과 量을 개선시켜야 한다. 특히 KEDI는 현재의 학습 자료로 學習障礙를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學習方法과 補助資料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한 學習補助資料를 添加하거나 統合시킴으로써 授業效果를 높이는 手段을 探究해야 한다.

體制變化 즉, 「改革」의 現點에서, KEDI는 研究資料의 相場適用을 직접 管理하지 않고도 보급시킬 수 있는 方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多元化된 體制에서는 어렵다. 학교에서는 연구 결과를 적용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中央集權化된 체제에서는 KEDI의 資料가 아동의 教育經驗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문교부만이 납득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實行의 효과는 個別的인 교사와 행정가들의 知的인 受容과 個人的인 참여에 의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의 요구를 진단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적절하고 실제적인 목표를 設定하며, 학생과 교육 과정에 맞는 수업의 적용, 그리고 相異한 연령 집단, 知的水準, 과해지는 內容, 적절한 수업의 傳達體制를 효율화시키는 것과 같은 전략을 강조하는 교사 교육과 현직 연수를 위한 教師訓練 프로그램의 原型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고 나면 KEDI는 教師訓練機關에 대한 訓練의 責任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KEDI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慎重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1) 내용, 자료, 방법론의 대규모적인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을 느끼는 程度 (2) 試驗的인 學校 프로그램이 一般化된 후에 학교에 적합한 KEDI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 (3) 보급 과정에서 교사와 행정가들에게 효과적인 誘因價의 種類 (4) 革新에 抵抗的인 것의 本質

마지막으로, KEDI는 西歐의 源泉을 가지는 模型이나 假定 뿐만 아니라 韓國의 思考를 反映하는 새로운 理論을 創案하기 위한 작업을 點檢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學習心理學에 비추어 한국의 아동은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밝혀내는 것 (2) 한국에서의 教師學習者 관계와 이런 관계를 변화시키는 影響力에 대한 연구 (3) 寄贈者, 協力國家 및 團體의 목적을 한국의 교육적 價値觀 및 政策과 比較하는 것이다. ○

(번역 : 임 천순(기획조정실 연구원))

# KEDI의 使命과 方向探索

James Kelly Jr. \*

본인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재정 지원 사업인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적 사례 연구 (Analytical Case Study of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의 연구 책임자로서 1974년부터 79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져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볼 때 큰 감격을 느낀다. 우리 모두가 한국교육개발원의 역사 초기에 드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10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이같이 놀라운 업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KEDI는 세계의 가장 뛰어난 교육 연구 개발 기관의 하나로 출현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KEDI가 설정해야 할 방향, 사명, 그리고 그 역할을 탐색하기 전에 먼저 지난 10년 간에 걸쳐 KEDI가 남긴 주요 업적을 보면, ① 새 교육 과정, 새 교수 자료 및 방법, 개선된 학교 경영 체제 등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의 종합적인 개혁, ② 연구 방법과 평가 및 철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교육 기초 연구 ③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교육 정책 연구와 탐색 ④ 취학 전 교육과 초·중등 교육, 직업 교육, 교사 교육, 그리고 성인·평생 교육의 다양한 영역인 교육 방송(라디

오, TV)의 중요성 ⑤ 연구 보고서, 정기 간행물, 교수 자료를 포함한 주요 출판 사업 ⑥ 공동 연구, 협회회의 추진과 재정 지원, 정보 교환 그리고 학자 및 연구원의 상호 교환을 통한 국제 협력 사업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KEDI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도전해야 할 새로운 목표와 방향 설정은 이러한 과거의 업적 위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국가적인 연구 개발 사업은 교육의 개선과 관계있는 모든 집단의 협력과 적절한 연계 관계가 이루어질 때 최대한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KEDI가 짊어질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명에 관한 과제들을 논의해 보자 한다.

## 연구 영역의 확대와 교육 혁신

한국 교육의 의미있는 개혁은 창립 이래로 KEDI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왔다. 1972년에 KEDI에 부과된 주요한 과업은 한국 학교를 위한 종합적이고 의미있는 혁신 계획의 착수였고 이것은 계속하여 압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 간 KEDI의 업적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초·중등학교 발전 계획이었다. 교과 과정, 교수 방법, 학교 경영, 기술 공학의 이용 등 주요한 사업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KEDI가 한국의 교육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

\* 미국 퍼즈버그 대학교 사범대학장, ph.D.



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이룩된 업적을 재평가하여 계속적인 개선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영역을 살펴보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초기에 주요 초점이 되었던 초·중등학교 교육 사업은 중등 학교 역시 초등 학교에서 얻은 성과처럼 좀 더 높은 단계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직업, 기술 교육에 관련된 사업의 확장도 역시 중요하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가 고도화하는 시대에는 변화를 감당할 수 있고 기업과 산업계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인 장애 자들에 대한 근래의 세계적인 경향은 사회가 이들을 위한 조치는 물론 생산적 삶의 영위를 위한 교육 개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종합적인 교육 혁신 사업에서 아직 미비한 영역은 고등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고등 교육 집단은 비구성원에게는 배타적이며, 교육 개혁자들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물론 고등 교육의 개선과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생 개발 도상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적, 지역적인 차원에서 종합적 개혁 대상으로 거의 여기지 않고 있다. 종합적인 혁신 사업의 성과는 고등 교육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서 가능하다. 고등 교육 기관 간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정책 방향의 모색과 정부의 후원, 그리고 KEDI와 같은 중앙 연구소의 연구 개발 사업이 잘 조화되므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KEDI는 혁신 사업에 불가결한 연구 개발 사업의 착수, 연속적인 수행 현장 검사, 결과, 평가와 측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고등 교육 혁신의 다양하고 공통된 과제들 중에는 교육 기회를 중등 교육 이상으로 확대, 교수의 질 향상, 고등 교육의 관리, 고등 교육의 평준화, 양과 질의 균형, 여자와 소수의 교육, 기술 공학의 이용 등도 포함한다.

### 교육 기회의 확대에 노력해야

교육 조직 개선과 경영에 대한 체제 접근 방법(systems approach)의 해석에 따르면 체제 이론의 적용은 교육 목표의 우선권의 설정, 목표

에 연관된 평가 기준의 설립, 교수 학습, 기술 공학, 교수 자료, 그리고 환경 변인들(environmental factors)이 이미 설정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된다.

체제와 기술 공학은 시초부터 KEDI가 큰 관심을 계속 두는 부분이다. 체제를 학교 수업과 경영에 적용했던 점과 교육 라디오, TV를 직접 교수 방식의 확대 수단으로 취급하여 기술 공학 자체의 효율성에 관한 진보를 보여준 점은 KEDI가 이룩한 뚜렷한 업적이다. 인쇄 매체를 통한 새로운 교수 자료의 개발에 대한 KEDI의 업적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과정 개발로 특히 특징지워진다.

체제와 기술 공학의 적용은 교육과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려는 모든 교육 지도자들에게 끝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다. 교육에 특별히 응용되는 기술 공학 중 교사의 통솔력, 개별화된 학습, 계획된 수업, 컴퓨터, 그리고 다양한 시청각 도구를 종합한 교수 체제(systems of instruction)가 있다. 인공위성의 이용은 TV가 교육 프로그램에 공유될 수 있는 국제적 방송의 가능성을 높혀 주었다. TV Cassettes의 사용은 방송 시설로 용이치 않은 직접 교수의 발전 가능성을, 케이블 TV는 전문화된 관심을 가진 청취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새로운 전망을 제공한다. 이렇듯 TV의 사용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새로 향상된 것 외에도 재래적이지만 작은 경비의 기술 공학 즉, 영화, 슬라이드, 레코오드, 교육 게임 등의 학습 보조 자료의 새로운 적용도 요망된다. 교육 구조가 새로 정립, 대체될 때, 또는 학령 인구의 증가 해결을 위한 새 구조가 개발될 때는 적절한 설비의 설계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기술 공학을 적용시킬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해야 한다. 발전하는 기술 공학은 우리가 아직 실현치 못한 두 가지 소망, 즉, 교수의 개별화와 교육 기회의 평등화를 이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교육 연구 개발 기관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를 생각할 수 있을까?

교육 기회의 확대는 「교육의 민주화」라고 볼 수도 있다. 이를 완수치 못한 사회는 진정한 민

주화를 이룰 수 없다. 물론 많은 과제가 다르지만 교육 기회의 확대야말로 교육 혁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라 하겠다. 장애인 등 소수 집단에겐 혜택을 주기 위한 교수 교육 제도의 수정과 실제 응용에 필요한 지원 체계의 확립에 대한 연구는 KEDI의 역할이다. 교육 기회의 확대란 점에서 성인 교육과 평생 교육을 빼 수는 없다. 이에 연관된 부가적인 영역은 방송 교육이며 이의 신중한 적용은 희망한 만큼의 학력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좀더 풍요한 직업의 만족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 기타 과제

KEDI가 수용해야 할 잠재적인 과제는 실상 끝이 없다. 주요하고 바람직한 과제를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연구 :** 한국이 직면하는 정책 연구 문제 해결에 KEDI는 큰 기여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서로 새로운 관심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 한국 교육이 기초 연구 결과를 응용한 점에서 KEDI의 공헌은 크다. 이제부터는 기초 연구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을 전담해야 할 것이다.

**자료 체제 :** KEDI는 교육 자료의 분류, 보관, 회수 및 보급 등을 위한 고도의 기술 공학

의 도입과 국내의 관련 기관의 활발한 자료 정보 교환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 관련 :** 국제적 차원에서 이미 KEDI가 이룩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자체의 자료들과 나타난 연구 결과를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는 일이 KEDI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재정 연구 :** 많은 국가들이 교육 체제 존속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난관을 겪고 있다. 교육의 타당성, 교육의 질이 저하됨이 없이 경제적 경영의 수행, 교육 체제의 내용, 효과적인 과정의 개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결 언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영속적인 세계 평화 조성에 있어서 교육은 의미있고 심각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과제는 교육 구조와 구조 체제 이상의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행복을 위해 교육이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거대한 책무는 어떠한 교육 연구 개발 기관이거나 간에 단독으로 작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DI와 기타 유사한 기관은 민족과 국가들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행복 가운데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속에서 대안을 추구하고 그 자신의 역할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번역 : 박 병선(교육과정연구 조정실장))

### □ 교육학 신간 서적 소개 □

#### ◇ 兒童教育論 ◇

김 은산 著 / 학문사 / 1982년 / 192페이지 / 4,000원 / 전화 724-5118

주요 내용

- 유아기와 상상력의 시기
- 자기 주장의 시기
- 충성심의 시기
- 자치냐? 벌이냐?
- 힘에 대한 오해
- 고집 권위와 참된 권위
- 권위로부터의 해방

#### ◇ 學校體罰 ◇

朴熙俊 譯 / 沖原豊 著 / 정민사 / 1982년 / 200페이지 / 4,000원 / 전화 722-3270

주요 내용

- 허용사회의 교육
- 교육의 황폐
- 세계의 체벌
- 체벌의 역사
- 영·미형, 대륙형, 사회 주의형
- 일본의 체벌
- 일본교육에의 제언

## 韓國教育開發院 10年

이 略史는 1982년 8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辛世浩 부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오늘 뜻 깊은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10주년 기념일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약사를 보고 합니다.

1972년 8월 30일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식으로 발족되기 1년 전, 전임 이 영덕 원장의 여려분께 의해 창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착수되면서 초창기의 만년을 극복하고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중앙교육행정 연수원에서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그 해 가을, 문교부의 협조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水雲會館 13층에 200명 규모의 사무실을 확보·이전하고 연구를 위한 기구 조직에 착수하여 원장 밑에 연구부와 운영부의 2개 부서를 두고, 연구부에는 연구기획국·개발지도국·기술지원국을, 운영부에 총무과와 출판과를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조직이 확대되면서 1973년에는 한·미 양국간의 차관 협정에 의한 500만\$과 기술 용역 250만\$, 그리고 TCOM 방송 장비 도입을 위한 700만\$을 합하여 1,450만\$의 차관이 본원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해 3월에는 韓國教育開發院 育成法이 법률 제2616호로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同法施行令이 大統領令으로 공포됨으로써 본원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틀을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충북 제천에 교육방송 송신소를 설치하였으며, 방송 통신 고등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의 추진 등 기본 사업인 초·중학교 교육 발전 사업 이외에도 많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활기찬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1974년 1월 서울 중구 예장동 소재 전 중앙교육연구소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그 해 3월에는 방송 통신 고등학교 수업 방송 프로그램의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플로리다 州 立大學과의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해 해외 연수 계획을 활발히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현재의 청사가 있는 牛眠洞에 대지 16,000坪을 마련하여 새 청사의 신축에 착공한 것은 1974년 5월의 일이었으며, 1975년 9월에 준공하여 현 청사에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초·중학교 교육 발전 사업을 수행하면서 4차에 걸친 새 교육 체제 소규모 시범에 이어 1975년 9월부터는 새 교육 체제 종합 시범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정기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재학생 대책 등 수많은 문교 정책 입안을 위한 과제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문교부 장관이 當然職으로 되어 있던 교육개발원의 이사장에는 초대 閔寬植, 2대 柳基春, 3대 黃山德, 4대 朴瓚鉉, 5대 金玉吉 前 장관님들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본원 발전에 노력해 주셨습니다. 1981년 이후 지금까지 李奎浩 장관님과 민선 이사장인 柳炯鎭 박사님께서 본원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원은 1980년 9월 前任 李榮德 박사님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귀하면서 제 4대 원장으로 洪雄善 박사님을 새로이 맞이 하였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정부의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의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한 TV 고교 교육 방송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임대 사무실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해 오던 교육과정연구부는 신청사가 완공되면 한 건물 안에서 보다 원활히 업무 수행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교육개발원에서 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본원을 떠나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동료만도 300여명이며 이들도 늘 개발원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창립 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나온歷程을 돌이켜 보는 이 순간,萬感이 腦裡를 스쳐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교육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500여 직원과 함께 앞으로의 힘찬 전진을 기약하면서 간단히 약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 ◇ 教育開發院 略史 ◇

71. 4. 美 플로리다 州立大 調査團이 韓國政府에 提出한 報告書에서 初·中學校 教育體制 改善을 위한 教育研究·開發 專擔機構設置를 提議
71. 11. 同 事業推進黨을 위하여 美「國際開發處」가 750萬\$의 借款을 韓國政府에 供與合議
71. 11. 文敎部長官이 李榮德 博士를 假稱「韓國教育開發院」院長으로 지명
72. 8. 財團法人 韓國教育開發院 法人登記畢, 初代 院長에 李榮德 博士 就任.  
初代 理事長에 閔寬植 文敎部長官 就任
72. 8. 事務室을 鍾路區 三清洞 中央教育行政 研修院 內에 設置
72. 9. 事務室을 鍾路區 [慶雲洞 水雲會館으로 移轉
73. 2. 教育開發 借款金에서 500萬\$ 相當 轉貸金 20億원 受領
73. 3. 放送通信 高等學校 設置를 위한 法的 根據 設定(教育法 第107條<sup>3</sup>)
72. 10. 韓國教育 理念 目標 確立을 위한 學術大會 開催(市民會館)
73. 3. 韓國教育開發院 育成法 制定 公布(法律 第2616號)
73. 5. TCOM 送信機材導入 借款(700萬\$) 韓·美間에 協定調印
73. 10. 韓國教育開發院 育成法 施行令 制定 公布(大統領令 第6899號)
73. 12. 教育放送局 送信所 建設 着工(忠北堤川)
74. 1. 放送通信 高等學校 設置基準令 制定(大統領令 第7008號)
74. 1. 事務室을 中區 藝場洞 前 中央教育研究所 廳舍로 移轉
74. 3. 放送通信 高等學校 授業放送 電波發射 開始
74. 5. 新廳舍起工(江南區 牛眠洞)  
—16,000坪 確保, 建坪 2,000坪—
74. 8. 鳳陽送信所 發足(忠北 堤川)
75. 5. 第2回 定期研究發表會(大韓教聯 講堂)
75. 9. 새 教育體制 第1次 綜合示範 着手
75. 9. 江南區 牛眠洞 新廳舍 完工, 入住
75. 11. 第3回 定期研究發表會(大韓教聯 講堂)
76. 3. 새 教育體制 第2次 綜合示範 着手.
76. 4. 第4回 定期研究發表會(大韓教聯 講堂)
76. 7. 再修生對策試案 公聽會(유스호스텔)
76. 10. 第2次 綜合示範 公開發表會(11個 市·道國校)
77. 3. 새 教育體制 第3次 綜合示範 着手
77. 8. 文敎部 새 教科書 供給施策에 따라 中·高 數學·社會 等 50種 教科書 開發 受託
77. 12. 朴瓚鉉 文敎部長官 第4代 理事長 就任
78. 3. 새 教育體制 第4次 綜合示範 着手
78. 5. 새 教育體制 適用結果에 대한 綜合評價會(서울市 教育院)
79. 1. 忠北 堤川 所在 鳳陽送信所 忠北教委에 無償讓與
79. 3. 새 教育體制 第5次 綜合示範 着手
79. 12. 金玉吉 文敎部長官 第5代 理事長 就任
80. 5. 李奎浩 文敎部長官 就任
80. 7. 教育正常化 및 過熱課外 解消方案을 위한 公聽會(世宗文化會館)
80. 9. TV 高校 教育放送 放映開始  
(MBC, KBS 를 통해 19個 教科目 制作 放映)
80. 9. 洪雄善 博士 第4代 院長 就任  
李榮德 前任 院長은 就任 8年 1個月만에 서울 大學校 教授로 復歸
80. 10. 教育放送 方向探索을 위한 세미나
81. 2. TV 高校 教育放送 UHF 教育專用 채널을 통해 放映 開始
81. 6. 本院 廳舍增築計劃(案)大統領 裁可
82. 4. 同 增築工事 着工, 11月 末 竣工 豫定

## 本院 研究報告書 抄錄

### 政治, 社會發展을 위한 教育의 役割

金鍾福 外 4人, 연구 보고서 제92집, 1979, p.310, 한국어

이 연구는 선진 諸國의 근대 국가 형성·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실증·분석하여 봄으로써 복지 사회 건설을 향하는 우리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과 발전 목표 정립을 위한 기초적 準據를 찾아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 사회 발전과 교육 역할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이론적으로 고찰 설정된 분석 모형에 의하여 선진 여러 나라의 근대 국가 형성·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교육의 역할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③ 선진 여러 나라의 발전 과정에 따른 교육 역할의 분석 사례를 비교 종합하여 이 결과를 하나의 준거로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 교육 역할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① 정치, 사회 발전의 이론 모형과 교육 역할의 분석 모형 설정, ② 분석 모형에 따른 선진 여러 나라의 교육 역할 사례 분석, ③ 분석 사례의 비교 종합과 한국의 발전 교육을 위한 提言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내용 전개는 다음과 같다.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6개국(영국, 프랑스, 덴마크, 미국, 일본, 이스라엘)의 근대 국가 형성과 그 발전 과정을 분석·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사회적 발전은 이룩하는데 교육이 직접·간접으로 기여한 바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전통의 특수성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기여해왔으며, 그리고 국가 발전이 교육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서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 체제의 상호 작용과 그 역동 관계는 어떠한가를 밝혀 보았다.

다음으로 선진 여러 나라의 발전 과정에 따른 교육 역할의 분석·사례를 비교 종합하여 이 결과를 하나의 준거로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교육 역할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學校 教育目標에 대한 社會的 要求分析

金鍾福 外 4人, 연구보고서 제95집, 1979, p.227, 한국어

이 연구는 교육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人性 및 행동 특성에 관해서 사회인들이 중요하다고 知覺되는 정도와 학교, 가정, 사회에서 이들 특성들을 어느 정도 가치롭게 생각하며 길러주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일차적으로 학교, 가정, 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 측면에 현실적인 요구 경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서 밝히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목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으로 학교 교육 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인간 특성은 무엇인가? ② 교육 목표의 학교 교육 실천도로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덕목은 무엇인가? ③ 교육 목표의 중요도와 학교 교육 실천도 비교 분석으로 理想과 현실의 知覺 격차가 적은 德目, 즉 이상과 현실의 일치도가 높은 덕목은 무엇이며, 격차가 큰 덕목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비교·분석한다. ④ 교육 목표의 가정 교육 지원을 살펴본다. ⑤ 교육 목표의 사회 장려도로서 사회의 현실적인 요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⑥ 학교 교육 실천도, 가정 지원도, 사회 장려도 간의 비교 분석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인간 특성들에 대해 학교, 가정간, 학교, 사회의 기대 덕목들 간의 일치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 방법에서 연구 대상은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특정 조사자로서 사회 지도급 인사를 선정하여 표집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設問紙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선형 연구와 각계 전문가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이들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따라 여러 가지 提言을 하였으나 그 중 핵심적인 제언은, 교육 목표를 하나의 길러야 할 특성을 습득시켜주려는 목표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습득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 韓國 社會教育의 發展課題

鄭泰範 外 2人, 기타 연구 보고(협의회 보고서)

1979, p.179, 한국어

본 회의는 우리 나라의 사회 교육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정부 6개 부처에서 선정한 事例를 연구,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 교육의 효율화 방안을 3개 분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먼저 우리 나라 사회 교육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학교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非形式 교육의 필요성을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에서 구명하였고, 또한 비형식 교육의 公教育化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제도적,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례 연구 발표에서는 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례 연구를 통하여 상호간의 경험을 나누는 점에서는 意義있는 것이었다.

분과 토의에서는 8개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사회 교육의 효율화 방안을 탐색코자 하였다.

제 1분과에서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교육 필요에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와 학습 방법 및 교육 대상자들의 학습 활동에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제 2분과에서는 사회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 강화와 사회 교육의 보편화 방안을 발전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따라서 학교가 갖고 있는 人的·物的 資源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종합하고 활용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학교 교육의 사회화, 사회의 교육화를 도모하였다.

제 3분과에서는 사회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 체계의 수립과 그 기능의 統合을 주요 문제로 다루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기초를 두고 앞으로 사회 교육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提言하였다.

## 教育均衡發展의 接近과 課題

金炳聲, 鄭英愛, 李仁孝, 기타연구물(교육 격차 해소 방안 협의회 보고서) 1981, p.120, 한국어

지금까지 教育의 격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學校外의 要因, 즉 學生의 家庭·經濟的 배경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학교 교육의 무력함을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學校學習環境이 學習효과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 세미나 보고서는 교육 격차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들을 분석하여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의 可能性 및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서, 제 1부에서는 教育隔差에 관한 이론들을 개관했으며, 제 2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 현황 및 문제를 진단하고 學校社會의 特性이 學業成就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검토하였으며, 學校의 學習風土 改善方向과 함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教育均衡發展 관련 연구 개요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 平生教育의 理念定立에 관한 研究

金蘭洙 外 4人, 기타 연구 보고, 1981, p.249, 한국어

새 헌법 제29조에 평생 교육의 이념을 명시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기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본원의 1981년도 연구 용역 과제로 연세대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연구된 것으로 平生教育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으며, 平生教育의 哲學의 기초에 대한 검토 및 心理學의 기초, 한국 평생 교육의 社會學的 기초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로는 平生教育 추진을 위한 地域의 주도성 신장과 平生學習 形態의 개발 및 平生學習 效果의 인식, 고등 교육 기관의 平生教育 기능 발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 ● 교과서를 기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신 태창(성균관대 교육학과) 사회 3-2(1965刊)의 1권  
오 진석(본원 교육자료국장) 사우디아라비아 교과서 산수(1-5학년) 5권  
우 서규(경기 광명시 소하 2동 안서중학교) 중학음악교본 (1947刊)의 2권  
김 종근(영등포구 신길 1동 89-128) 수신서 (1908刊)의 5권

## 教育社會學의 研究觀點

—신교육 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朴 富 權

(本院 研究員)

### ① 교육 사회학의 관점과 교육 현상

우리들은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보고자 할 때는 망원경을 사용하고, 가까이 있는 물체라도 이를 확대하여 보고자 할 때는 현미경을 사용한다. 교육 현상도 물체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의도하는 바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들여다 보는 관점 혹은 說明體系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교육 사회학도 교육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요 설명체계이다. 그렇다면 교육 사회학은 어떠한 교육 현상을 설명하는데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교육을 사람 만드는 일 혹은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우리들이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끝이 끝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교육 문제들, 예컨대 대학 입시 제도를 놓고 빚어졌던 문교당국과 대학, 학부모 간의 알력과 마찰, 철퇴로써 겨우 붙을 끈 과열 과외, 무더기로 적발된 학생들의 위장 전입 문제 등등이 왜 발생하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교육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관점 속에 암암리에 내포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는 超時代的 超社會的으로 타당한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다는 假定이다. 다시 말하면 고려 시대의 이상적 인간형은 조선시대와 오늘날의 이상적 인간형과 다

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이상적 인간형도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이상적 인간형과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두 번째의 가정은 첫 번째의 가정에서 논리적으로 導出되는 것으로서 어떤 시대,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부정될 수 없는 보편적인 지식의 체계가 있다는 가정이다. 이와 같이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는 관점은 현재 우리의 目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분석하는데서 출발하였다기보다는 현실의 교육과는 무관하게 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이상적 인간형을 추상적으로 상정하고, 현실의 교육을 거기에 適合 시키고자 한 形而上學의 模型이다. 이와 같은 관점이 서두에서 예로 든 바 있는 현안의 교육적 문제들을 설명하는데는 구체적인 시사를 주지 못하고 공허한 주장으로 그치고 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그런 일로 생각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 보다 많은 사회적 補償을 받을 수 있는 수단, 다시 말하면 階層上昇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 사회학의 관점도 대다수 사람들이 교육을 보는 관점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 ② 교육 사회학의 세 가지 관점

지금까지 교육 사회학의 주된 논의는 교육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의 총체—權力, 財産, 社會的 評價, 심리적 滿足—를 의미하고, 특히

교육 사회학적 논의의 초점은 그것의 不平等構造에 모아진다. 사회적 보상의 불평등 구조는, 그것의 결과로서 삶의 기회(life-chance)와 생활 양식(life-style)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 삶의 기회란 유아 사망률, 수명, 육체적·정신적 疾患, 결혼, 갈등 등을 의미하고, 생활 양식이란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의 종류, 즐기는 오락,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시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들이 보는 서적 잡지 등을 가르키는 말이다. 사회학자들은 흔히 삶의 기회와 생활 양식의 차이를 계층 현상의 결과로 본다. 따라서 교육 사회학이 교육이 아동들의 계층 상승 이동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를 탐구의 중심과제로 삼아 왔다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교육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이 계층 상승 이동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부정의 정도는 주장자의 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다.

첫째, 構造機能主義 教育社會學者들은 교육이 계층 상승 이동에 貢獻하고는 있으나 그 정도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재의 교육 제도 하에서 계층 상승 이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층 계층 아동들을 위한 補償教育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 제도의 부분적인 수정을 시도하였다.

둘째, 신마르크스주의 계층의 교육 사회학자들은 교육을 계층 상승 이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계층 상승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그들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의 기존의 계층 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을 사회 경제적 힘의 부수물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을 수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그 결과로 그들은 정치적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신교육 사회학은 첫 번째의 구조기능주의 교육 사회학과 두 번째 신마르크스주의 교육 사회학의 중간 입장에서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 입장은 교육이 계층 상승 이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교육 체제와 교육 실천 속에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 제거하고자 한다.

### ③ 신교육 사회학의 설명 체계

신교육 사회학은 교육 제도와 교육 실천 속에 내재해 있는 계층 상승 이동의 저해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교육 사회학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지식도 절대 불변하는 진리이거나, 가치 중립적이거나 보편타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쟁적인 가치 체계, 신념 사고 방식들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 방식이나 신념 체계는 그가 처한 독특한 사회적 시대적 상상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그의 계층적 이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식은 누구에 의하여 선택되는가? 둘째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상황은 무엇인가?

신교육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교육 과정을 구성해 온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배 계층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문화 내용과 사고 방식을 교육 내용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들이 이상으로 하는 인간형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음으로서, 여기에도 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적은 사회적 보상을 주고 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유로 삼았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다른 사회적 상황에 사는 사람들은 우선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이 그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문화 내용과 다른 데서 교육적 성취가 어렵게 되고,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식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데서 제2외국어 배우는 사람처럼 아무리 열심히 배우도 그것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교육적 성취의 한계성을 지니게 됨은 물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함께 배움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종속적인 의식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종속적인 의식 구조가 지니는 문제점은 그것의 비인간적인 측면 외에도 일단 그 의식 구조 속에 편입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타방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속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고서는 그와 대적하고 있는 상대와 맞서는 데 필요한 힘을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어려운 여유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교육 사회학적 관점을 교육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 체계로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방법론적 문제점을 미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신교육 사회학이 근거하고 있는 상대주의적 입장과 관련되는 이론적 난점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 체계는 그가 처한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므로 편파적이라고 한다면 신교육 사회학자들의 주장 역시 그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므로 결코 보편적일 수 없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신교육 사회학이 타방을 공격하는 데는 날카로운 면모를 보이지만,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도 상대주의의 문제를 명료하게 해명하지 못한 데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방법론적 미숙이다. 신교육 사회학의 상당한 주장들이 우리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도 미숙한 방법론으로 인하여,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신교육 사회학에서는 왕왕 주장이 증거를 대신하고 증거의 성질과 한계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인간적, 개인적 관점을 허락하며, 천 년을 통할 수 있는 해결책의 가능성을 항상 남겨 두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신교육 사회학적 관점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방법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본 교과서 검정 사건과 같은 국가간의 문화 교류와 지식 이동 현상을 설명하고 이

해하는 데는 우리의 처지에서 볼 때 더욱 유용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 ④ 교육 사회학의 영역 확대

우리가 만약 모든 국가를 초월한 이상적인 인간형을 설정하고 일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우리들의 주장을 순순히 따라 줄 것인가? 일본의 지도자들이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 생각하는 인간형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인간형과 동일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임을 신교육 사회학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일본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상이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후세들을 거짓말장미로 기르든 도둑놈으로 기르든 별로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들이 분노하고 염려하는 것은 교과서 왜곡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들의 음흉한 지배 의욕과 침략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들도 그들에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일본인상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제시한 견해가 진리이며, 인류가 구축해 가야 할 보편적인 도덕적 준칙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거절했을 때 초래될지도 모르는 자국의 불이익과, 우리의 주장 뒤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국력 때문이라고 봄이 더욱 타당하다.

요컨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교육 사회학적 논의의 초점을 이루어 왔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가장 심층적인 원인으로 교육 내용과 실천 속에 함축되어 있는 계층적 편견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신교육 사회학의 논의는 환경이 인간 사고에 가하는 제약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경쟁적인 여러 집단의 정치적·문화적 힘의 차이로 인하여 집단적 계층적 편견과 이해를 넘어선 교육 내용물 구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밝혀 주고 있다. □

## 科學教育에 있어서 實驗·實習

朴 範 翼  
(本院 責任研究員)

과학 교육하면 대부분 먼저, 실험·실습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탐구 과정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실험 기자재의 부족, 다인수 학급, 교사의 업무 과중 등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교육 현장에 쌓여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하게 된다.

현장 교사나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기초 과학 교육의 진흥, 과학 교육의 내실화 등을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전 문교부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교육 진흥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과학과의 수업을 현재의 강의식 내지는 주입식 수업 방식에서 실험 중심 수업 방법으로 전환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약 55% 밖에 되지 않는 실험·실습 기구 및 시설 보유율을 앞으로 86년 까지 약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우수한 과학 교구 개발 공급 체계를 확립하며, 실험·실습에 필요한 실험 지도서와 평가 방법도 개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과학 교사의 주당 수업 시간도 현재 24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며, 과학 실험실에 조교도 배치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진흥 방안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등 기초 과학 교육에 1,683억 4천 1백만원을 83년부터 86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 기초 과학 기술 교육의 발전은 물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우수 두뇌 양성을 위해서도 매우 밝은 전망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과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느 한 학교에 충분한 실험 기자재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바로 과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과학적 사고는 어려서 부터 체계적·지속적으로 길러주어야 한다. 어려서 부터 지식·위주의 교육과 점수따기 경쟁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갑자기 실험 기구 몇 개 만져 보고 탐구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 교육에서는 실험·실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 각종 평가 문제(학력 고사 문제를 포함하여)에 있어서 지식이나 사실 내지는 개념과 원리를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교사나 어느 학생이 실험·실습을 중요시 여기고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인가.

과학 교육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만 하겠고, 무엇보다 입시와 관련된 각종 평가가 현재의 지식과 개념 위주에서 실험·실습을 중심으로 한 탐구 기능과 아울러 개념, 원리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도 쉬운 것은 아니다. 실험·실습 활동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있다. 과연 탐구 활동과

탐구 기능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 교육에 있어서 실험·실습도 중요한 과정의 일익이다.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실험·실습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평가 기준을 넓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실험 활동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어느 정도 창의력을 가지고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면 될 것이다.

우리 동양 사상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나아가서 자연의 현상과 원리까지도 힘(力), 속도(速度), 균형(均衡)에 조화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성(균형), 신속성(속도), 창의성(힘)이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탐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실험·실습의 평가 기준을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기능면, 태도면, 이해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기능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험을 하면서 얼마나 익숙하게 신속하게 실험 기구를 조작하여, 실험 방법에 따라 얼마나 정확하게 진행하는가를 측정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은 교사 자신이 사전에 실험 과정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시간대를 구분해 놓고, 그 시간 안에 어느 단계의 실험 과정을 진행했는지 실험 과정 분석표를 통하여 학생들을 조사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태도면에 있어서는 관찰이라던가, 추리, 예상, 토의, 결과 처리 등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조사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이란 것은 몇 가지 예상되는 준거를 수준별로 설정해 놓고, 어느 단계까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조사해 보면 될 것이다.

그 다음 이해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그 실험·실습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으며, 각 실험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왜 필요하

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는 방법이다. 또한 실험 과정이 끝난 후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으며, 그것을 다른 현상이나 원리에 얼마나 적용시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실험·실습 기록 용지에 각 단계별 질문을 사전에 써 놓은 후,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을 해 나가면서 간단히 기록을 하게 한 후, 그 실험 보고서를 평가해 보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법에도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이며 특히, 다인수 학급에서 교사 혼자 많은 학생들을 하나 하나 측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사전에 실험·실습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목표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설정한 후 하나 하나의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자료(문항 포함)를 사전에 자세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 밖에 또 한 가지 우리는 학생들의 탐구 능력뿐 아니라 학생들의 심성,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과학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자연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예로서 학생이 무엇을 관찰하려고 할 때,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사물과 현상만을 그냥 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관찰이란 것은 자연의 사물과 현상이 어떠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부분은 전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그 현상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며, 그 현상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다른 현상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까지도 알고 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결국 자연을 바로 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심성을 지닌 사람을 키워야만, 진정한 과학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 원 내 동 정

## ◆ 세미나 및 협의회 ◆

- 9월 29일 본원 방송통신교육연구실 주최로 「방송 통신 고등학교 교육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의 세미나를 원내의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서울 호텔(영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10월 12일 본원 회의실에서 유니셉 고문인 Dr. C.T. Crellin 씨를 초빙하여 「교육 발전의 지표」에 관한 특별 강연회가 있었다.
- 10월 22일 한·미 교육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본원을 내방한 Dr. Davis씨와 미국 ERIC SYSTEM의 운영에 관한 협의회가 있었다.
- 11월 5일과 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본원 창립 10주년기념 세미나가 「2000년대의 사회 발전과 교육」이란 주제로 원내의 인사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11월 16일부터 2일간 본원 회의실에서 「장학 행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협의회」가 원외 박태봉(서울대)교수 외 6인, 원내 담당 연구원 5인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발전 연구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 ◇ 내방 인사 ◇

-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Mr. Belete Demissie 에디오피아 문교부 기술교육훈련국장이 한국의 기술 직업 교육 및 훈련의 운영 현황 및 행정에 관한 연구 협의회차 본원을 방문하였다.
-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유네스코의 연수 계획에 의해 내한한 태국 교육성 여성 공무원 Mrs. Chumnian Chultong 외 1인이 교육 공학과 방송 매체 운영 연수차 본원을 방문하였다.
- 10월 21일 서강 대학교 신문 방송학과 대학원생 15명이 본원 현황을 듣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전학하였다.
- 10월 22일 Mr. Panom Karvkamnera 태국 문교성 교직원국장이 문교부 초청에 의한 방한 기간 중 본원을 방문하였다.

- 11월 1일 Sir. James Hamilton 영국 과학성 차관이 수행원 2인과 함께 본원을 방문하였다.
- 11월 2일 Dr. Kasem Sirismpundh 태국 문교부장관 외 5인이 정부 초청에 의한 방한 중 본원을 방문하였다.
- 11월 3일 미국의 아세아 문제 전문가 Greenfurge 박사가 본원을 방문하였다.
- 11월 9일 태국 국민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한국 새마을 운동 현장 시찰단이 방한 기간 중 본원을 방문, 한국 아동 진로 지도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11월 16일 태국 과학 교육 아동 훈련 과정 관계자 Dr. Thongchar Chewprecha 외 3명이 본원을 방문하였다.
- 10월 11일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육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 Dr. Robert Horper 교수 외 사회과학자·편집인 등 20여명이 「미국 사회과 교과서 저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차 내원하였다.

## ◆ 해외 출장 ◆

- 최 운실 연구원은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제 노인 교육 협회 세미나」 및 국제 성인교육협회」원샷에 참석차 벨기에를 경유하여 프랑스에 다녀 왔다.
- 국제 협력 담당 허 운나 박사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본 유네스코 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제 1차 「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교육 공학 세미나」에 참석하고 귀국하였다.
- 황 혜숙 외국어교육연구실장은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학교 영어 교과서 개선을 위한 외국어 교육 자료 수집을 위하여 미국을 다녀왔다.
- 교육과정 연구부장 한 종하 박사는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초등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로 초등 교육의 실태와 관계 교육 연구 활동 조사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하고 귀국하였다.



● 한국 교육개발원의 연구진이 특별히 개발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각 교과목의 특성을 포괄적·단계적으로 다루어 내용이 충실하며, 시청 전후에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한 방송교재의 혁신판이다!

# 고교 교육 방송 교재

## ○ 고교 교육 방송 주간 편성표 ○

삼화서적주식회사		교 학 사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고교영어	고교영어	고교국어	
고3영어	고3영어	고3국어	
국민윤리	고교국어	수학 I 상	
국 사	고3국어	수학 I 하	
정치경제	수학 I 상	고3수학	
사회문화	수학 I 하	물 리	
국토지리	고3수학	화 학	
인문지리		생 물	
세 계 사		지구과학	

구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본 방송	KBS3	19:00 19:30	수학 1	수학 I	수학 I	고교 영어
	19:30 20:00	국어1		국어2	물리	정치경제 세계사	화학	
	22:00 22:30	고3 영어		고3 영어	고3 국어	고3 국어	고3 수학	
	22:30 23:00	생물		국사	지구 과학	사회 문화	국민 윤리	
재방송	MBC	05:30 06:00		고3 수학	고3 수학	생물	국사	지구 과학
		06:00 06:30		국민 윤리	진로 지도	고3 영어	고3 영어	고3 국어

※ MBC TV 재방송은 본 방송 2일 후에 방영됨.

격월간 교 육 개 발

제 4 권 6 호 · 통 권 21 호

1982년 12월 5일 인쇄 · 1982년 12월 10일 발행

등록 바-574 (1975년 8월 20일)

발행인 홍 응 선

재단법인 한국 교육 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67-5121 · 567-5021

인쇄처 신성인쇄사

\* 本誌의 내용은 本院의 公式的인 意思가 아님.

